



농어강선

12

주제 103 (2014)
루게 제304호 월간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폭넓고 승엄한 감정으로 (♩=76)

mf B[♭] F₇ B[♭] F₇ B[♭] B₇

1. 이강 산 밝히는 해 빛처럼 누리에 그 미소 찬란하다 인
민위 해바 치신 어버이 사랑 무 궁 토록빛을 뿐린 다 - 장
군님 은우리와 함께계 시며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E[♭] D_m F_{m6} G₇ C_m F₇ B[♭] B₇ f

E[♭] D_m F_{m6} G₇ C_m F₇ B[♭]

2. 정의와 진리의 앞길 밝힌
선군의 그 자욱 불멸하다
조국위해 쌓으신 위대한 업적
후손만대 길이 빛나리
(후렴)

(2절 반복)
3. 정의와 진리의 앞길 밝힌
선군의 그 자욱 불멸하다
조국위해 쌓으신 위대한 업적
후손만대 길이 빛나리
(후렴)

작사 최준경
작곡 설태성

차례

그리움의 3년, 비약의 1 000여일	3
수기	
그날은 12월 15일이였다	7
좌담회	
오늘도 희천방은 장군님을 기다립니다	8
조선의 선택·선군	10
평화를 지켜가시는령장	1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차광수가 찾은 길	12
명월구에 새겨진 사연	14
수기	
여사를 그리는 마을 시에 갑아	15
자주적권상의 실현을 위해	16
과학기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17
철성아래 차과마다	20
김일성김정일기금은 어떤 활동을 벌리는가	24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이북》	25
건설의 대번영기를 마련하는 나날에	26
선군정치와 조선의 현실	26
면모를 일신한 청춘거리 체육촌	28
조선의 관광지들을 찾아서 (3)	31
창애자들도 향탕한 사회의 합성원이다	34
조국의 품에 안겨	
행복은 창조에 있다	35
편지	
우리 모두 조국에서 만나자	37
고향소식	
박고장의 풍치에 아끌려	38



나라들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하는 계기	40
157가지 빵리에 깃든 마음	42

고국방문

노래속에, 기쁨속에	44
-----------------------------	----



인상기

미림승마구락부를 돌아보고	46
고국을 알게 되었다	46

고국에 큰절을 드린다

한해의 취재수첩을 펼치고	48
부여의 정치구조에 대하여	49

사화

왕의 후회	50
------------------------	----

야화

박연폭포미야기	50
--------------------------	----

력사인물

애국명장 강감찬	51
---------------------------	----

민족의 향기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가야금	52
----------------------------------	----

조선의 특산

백두산누렁이	53
-------------------------	----



술술, 거제의 소술이기야	54
--------------------------------	----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새 국면을	55
------------------------------------	----

최악의 역사는 지워질수 없다	56
----------------------------------	----

상식

한정초에 힘든 마음이 뜻밖들의 것강에 좋다	38
--	----

『당정유』	43
------------------------	----

조선속달 소심성 (조심성)	49
---------------------------------	----

유모아

눈물고 병진단	55
--------------------------	----



광복지구상업중심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100(2011)년 12월

그리움의 3년, 비약의 1 000여 일

12월을 맞을 때면 사람들은 누구나 한해의 자랑스러운 성과를 안고 희망찬 새해를 마중하게 될 류다른 환희와 격정 속에 달려의 마지막장을 펼치곤 하였다.

하지만 3년전부터 우리 인민은 하늘처럼 밀고 살던 자애로운 어버이를 목메여 찾고 부르며 오열을 터뜨리던 피눈물의 나날에 대한 잊을수 없는 추억을 안고 더더욱 뜨거워지는 그리움속에 12월을 맞고있다.

12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 세기와 세기를 이어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과 한없이 자애롭고 고결한 덕망으로 빛나는 김정일장군님의 성스러운 한평생이 소중히 담겨져있는 조선의 12월이다.

찬바람부는 추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일요일의 휴식까지 바치시며 인민의 기쁨이 넘쳐나는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찾으시였고 생애의 마지막나날에는 하나음악정보센터와 광복지구상업 중심을 돌아보시며 인민생활향상과 관련한 귀중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 현실로 꽂혀난 름라꼽등어판,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에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난다.

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이어 수도시민들에게 물고기를 공급할데 대한 구체적인 조치까지 취해주신 장군님!

그이께서는 잊지 못할 그 12월에 자신의 한생을 이렇게 총화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어버이장군님을 뜻밖에 잊고 얼마나 위대하고 자애로운 분을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다시금 절감하였으며 그이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누려왔는가를 더욱 짐작으로 새겨안았다.

3년, 그 나날 우리 인민모두는 어느 한순간도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품을 잊고 산적이 없다.

장군님과 맷은 정을 피줄처럼 지닌 천만군민이 뜨겁게 맞고 보낸 그리움의 3년, 비약의 1 000여 일이 훌러갔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수령영생의 12월, 맹세와 실천의 12월로 이어지도록 하시기 위해 현신의 세계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따라 천만군민은 하나와 같이 떨쳐나섰다.

온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일어났다.

군대와 인민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최첨단돌파정신과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숭고한 애국정신으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충정의 새 역사를 펼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꽂혀난 단천항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와 옥류아동병원이며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와 같은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 대지를 박차고 우주로 날아오른 인공지구위성…

인민의 리상이 꽂혀날 사회주의문명국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조국, 최첨단으로 치달으는 주체과학, 금메달로 빛나는 주체체육을 비롯하여 많은 분야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나갈 맹세를 안고 비약해온 나날에 이룩된 김정일애국주의의 고귀한 결정체들인것이다.

오늘 조국의 여기저기에서 위훈의 소식들이 들려온다.

나라의 손꼽히는 대규모건재생산기지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건설의 대번영기를 앞장에서 열어갈 로동계급의 드높은 열의가 조선속도창조의 기상으로 나래치고있다. 그들은 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분발하여 소성로의 가동일수를 보통때의 1. 6배이상 늘이였다. 조업이래 최고의 수준으로 되는것이다.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닌 남홍로동계급 역시 우

리의 기술, 우리의 원료로 최고생산실적을 이룩할 열의를 안고 참으로 뜨거운 심장을 바쳐 시비년도 기간 비료생산에서 최고기록을 돌파하였다.

그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수만의 비료를 더 생산한것으로써 올해 농업생산에 이바지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이 비상히 강화되고 있는 속에 전국적으로 30여개의 대상들에 파견되어 활동하고있는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1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며 올해를 과학기술성과의 해, 과학기술승리의 해로 빛내일데 대하여 하신 말씀을 높이 받들고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을 비롯하여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기동성있게 풀기 위한 긴장한 사업을 벌려왔다.

어제는 온 나라에 바다향기가 넘치게 물고기 풍년이 들더니 오늘은 철령아래 사파바다가 아득히 펼쳐져 고산땅이 꺼지도록 사파풍년이 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차례 이곳을 찾으시여 파수에서 세계적인 평권을 쥐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투쟁해야 한다고 하시며 가까운 년간에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정해주시고 파일생산을 늘일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던것이다.

비약의 1 000여일에 이룩된 성과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금수산태양궁전을 나서시는 길로 사연깊은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던 그 위대한 발걸음으로, 어버이장군님의 한생의 염원을 풀어드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며 맵짠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평양민속공원건설장을 찾으시던 그 모습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계절 변함없이 전선길,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는 한겨울에도 눈덮인 고지며 공장길을 쉬임없이 걸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더위에 피서지를 찾고있을 때에도 강철의 의지로 삼복의 폭양을 헤치시며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계시였다.

고산파수농장, 원산구두공장, 천리마타일공장, 천지윤활유공장…

그럴 때면 삼복철강행군을 해봅시다라고 세상에 없는 《삼복철강행군》이라는 묘현까지 써가시며 인민들이 누리게 될 복을 마련하시기 위해 험한 령, 높은 산발, 흙먼지길, 폭우길을 종횡무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더없이 그리시던 그이이시였다.

이렇게 새겨가신 원수님의 삼복철현지지도의



광복지구상업중심을 찾은 근로자들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서 새집들이경사

길에는 땀에 젖은 손수건을 몇번이나 바꾸신 사연도 있고 억수로 쏟아지는 무더기비때문에 도로를 따라 달린것이 아니라 강물속을 해친것만 같았던 이야기도 있으며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새벽안개속을 헤치고 철령을 넘으신 사실도 있다.

천리마라일공장을 오랜 시간에 걸쳐 현지지도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몸소 건설주가 되시여 굴지의 건재생산기지로 일떠세워 주신 공장의 혁사는 오래지 않지만 곳곳에 장군님의 체취가 뜨겁게 어려있다고 말씀하시던 원수님께서는 천지윤활유공장을 찾으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애국업적에 의하여 탄생한 공장, 장군님께서 단신으로 겪으신 고생과 맞바꾸어 후대들에게 물려진 이 공장에 와보니 이처럼 현대화된 훌륭한 공장을 장군님께 한번도 보여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가슴을 허빈다고, 천지윤활유공장은 유복자공장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은 당는 곳마다 기적을 낳았고 새 전설을 꽂피워왔다.

어버이장군님 그대로 조국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정이 너무도 불같으시여 구상도 모든것이 세계적수준이고 목표도 언제나 최첨단이며 실천도 상상하지 못했던 희한한 결실로 이어놓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리움의 3년, 비약의 1 000여일은 조국땅의 모든 승리와 행복, 번영의 원천이 파연 무엇인가를 더 잘 알게 해주었다.

승리와 영광의 가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은 3년, 30년, 아니 대를 이어

새로 개간된 인공풀판에 양떼가 흐른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염원을 꽂피우며 언제나 승리의 길만을 걸어갈것이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조선중앙통신



더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어로공들



주체비료를 가득 실은 차들이 사회주의협동별로 떠나간다.

수 기

그날은 12월 15일이였다

지금도 3년전 12월 15일의 일이 눈앞에 선하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현대적으로 다시 꾸려진 우리 광복지구상업중심(당시 광복백화점)을 찾으시였다.

너무도 뜻밖에 그이를 뵙게 되고 더욱기 그이를 안내해드리게 된 나는 가슴이 활랑거리였다. 그러나 정작 그이의 환하신 미소와 친근한 음성을 대하게 되자 봄날의 눈석이마냥 순간에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날 장군님께서는 어제밤에도 많이 생각해보았는데 광복백화점의 이름을 《광복지구상업중심》이라고 짓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상업중심에 이렇게 많은 상품을 가득 채워놓은것을 보니 추운 날이지만 자신의 마음이 후더워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날은 정말 날씨가 추웠다. 밖에서는 맵짠 찬바람이 세계 불어 길을 오가는 사람들도 적었다. 바로 그러한 속에 우리 상업중심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좋은 일을 하였다고 그리고 만족해하시면서 가정주부들이 리용할 부엌세간이며 너성들이 리용할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상품들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였다. 모자매대에게 모자를 씌워보시며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못내 기뻐하였다. 그렇게 뜨개옷매대, 가구매대, 가방매대, 어린이들의 놀이터와 식당을 비롯하여 1층으로부터 3층에 이르는 로정을 끌까지 다 돌아보시였다.

그날 그이께서는 평양제1백화점과 경쟁을 하여 경쟁에서 이

기라고 정답게 말씀하시면서 경쟁을 하면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상품이 차례지고 실제로 덕을 보게 되니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은 언제나 인민, 이 말로 가득차있었다. 그이께서는 상업중심을 나서시면서도 우리 일군들과 봉사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발휘하여 상업봉사활동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리라 믿는다고 당부하시였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날의 현지지도가 장군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당부이고 생애의 마지막 현지지도로 될줄 그 어이 알았겠는가. 그로부터 이를후 그이께서 심장의 고동을 멈추시였다.

그이의 서거에 대한 보도를 들었을 때 나는 역장이 통채로 무너져내리는것 같았다. 우리 상업중심의 종업원들이, 길을 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그것이 사실인가고 통곡하며 물을 때 나는 그들속에 파묻혀 눈물만 하염없이 쏟았다. 도무지 그것을 믿을수가 없었다.

친정아버지처럼 그리고 정겨운 미소속에 나를 바라보시며 해설을 다 들어주시고 떠나실 때에는 그 맵짠 추위속에서 차창을 내리우신채 인사를 올리는 나에게 그리고 따뜻이, 그리고 오래도록 손을 저어주시던 장군님이시였다.

그날 나는 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신 행복감에만 젖어 그이께서 모진 아픔을 참으시며 우리 상업중심을 찾으신줄 미처 몰랐다.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쳐오신 장군님께 그



마지막 현지지도의 길에서까지 순간의 휴식도 마련해드리지 못한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솟구쳐오른다.

장군님께서는 그렇게 한생을 인민을 위해 고스란히 바치시였다.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신 분이시였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온 나라 방방곡곡을 쉬임없이 찾으시며 인민을 위한 헌신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나는 오늘 우리 상업중심을 찾는 인민들의 밝은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장군님생각이 못견디게 간절해진다. 금시라도 그이께서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 상업중심에 들어서실것만 같고 그날처럼 친근하신 음성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실것만 같다.

12월 15일, 이날은 나의 한생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날이다.

나는 앞으로 그이의 숭고한 뜻을 만들어 이 몸이 진할 때까지 인민의 봉사일꾼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광복지구상업중심 부지배인
김영옥

오늘도 희천땅은 장군님을 기다립니다

참가자

안금순 : 자강도 희천려관 지배인 (로력영웅, 선군시대공로자)
 김영희 : 자강도 희천일용품생산협동조합 관리위원장
 오정희 : 자강도 희천제사공장 로동자
 연 옥 : 본사기자



안금순

기자 :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에 자강도 희천시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자욱이 어린 공장, 기업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모두가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적시고 있습니다.

안금순 : 그렇습니다.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겼던 혁사의 그날에 살고 있는 희천사람들의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6년전인 주체87(1998)년 10월 희천땅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을 몸가까이 만나뵈온 사람들중의 한 사람입니다.

나라일에 그토록 바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름없는 우리 려관

을 찾아주실줄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차에서 내리시는 위대한 장군님께로 제가 달려가 정중히 인사를 올린후 《장군님, 뵙고싶었습니다. 정말 모시고 싶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저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그래서 오지 않았습니까.》라고 하시는것이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려관내부는 물론 뒤마당에 있는 호박굴과 돼지우리, 남새발 등을 돌아보시고 땅을 립체적으로 리용하니 얼마나 좋은가고 만족해하시며 고난의 행군기간 이곳 종업원들이 희천시안의 중요공장, 기업소 과학자, 기술자들과 고급기능공들의 생활을 잘 도와주어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는데 적지 않게 이바지하였다고, 이 동무들을 고무해주자고 바쁘지만 이렇게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며 그토록 높이 평가해주시던 우리 장군님의 한없이 숭고한 풍모가 그대로 어려와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습니다.

김영희 : 주체91(2002)년 7월 희천땅에 또다시 불멸의 자

육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쁜아침 제가 관리위원장으로 일하고있는 희천일용품 생산협동조합을 남먼저 찾아주시였습니다.

그날은 참으로 무더운 날이였습니다. 전날에는 하루종일 비가 억수로 쏟아지다보니 아침에 해가 펴지자 대기는 무덥고 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 일터에 들어서신 위대한 장군님을 뵈옵는 순간 저는 너무도 축가신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며 눈시울을 적시였습니다



김영희

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제품견본실과 현장들을 돌아보시며 이 생산협동조합처럼 자체로 만든 설비들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에 절실

히 필요한 여러가지 소비품들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오정희 : 우리 희천제사공장은 자강도안의 인민생활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터전을 잡아주신 공장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10월 20일 점심식사도 뒤로 미루시며 고난의 행군의 후파로 숨이 죽은 우리 공장을 처음으로 찾으시여 공장이 살아나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그후 우리 공장에서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모든 경영활동을 짜고들어 생산을 정상화해나갔습니다.

저는 주체98(2009)년 10월 또다시 공장을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앞에서 기대를 다루는 모습을 보여드리였습니다.

평상시에는 능숙한 솜씨로 팔조기(명주실포장기)를 다룬 제가 장군님께서 보아하신다는 생각에 한껏 긴장해서인지 동작을 매우 서툴면서도 더디게 하였습니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팔조기에서 작업하는 기대공의 모습을 보니 손로동이 많다고 하시며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장을 현대화하도록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때 저는 어버이장군님을 우러르며 결정으로 가슴설레였습니다. 우리 로동자들을 위해 그처럼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을 정녕 천만년세월이 흘러간대도 잊을수 없습니다.

김영희 : 옳은 말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심장의 고동을 멈추신 때로부터 3년이

되였지만 우리 조국의 수천만 아들딸들은 언제 한번 그이께서 우리곁을 떠나시였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속에 안겨 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절감하고있습니다.

사색과 실천의 첫자리에 인민을 놓으시고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쳐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강행군길을 끝없이 이어가신 어버이장군님의 모습을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뵈옵고있습니다.

안금순 :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자강도안의 여성로력혁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68돐경축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공연 《조선로동당 만세》를 관람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후 우리 여성로력혁신자들이 삼아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동무들을 보니 힘이 생긴다, 혁신자들이 다르다, 앓지 말고 다시 만



오정희

나자는 내용의 회답편지도 보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끼고 내세워주신 자강도 여성 일군들의 건강이 어떠한지 걱정이 된다고 하시며 도의 책임 일군이 직접 현지에 내려가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을 세우라는 간곡한 말씀을 주시였다고 합니다.

김영희 : 정말이지 지배인 안금순을 비롯한 자강도안의 우리 여성일군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어제도 그려하였지만 오늘도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습니다.

안금순 :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며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기에 이제라도 장군님께서 우리 희천땅에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며 들어서시는것만 같아 한가지 일을 해도 그이께 기쁨드릴 하나의 일념으로 일손을 놓지 못하고있는 우리들입니다.

일동 : 그렇습니다.

기자 :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는 인민의 그리움은 여기 희천땅만이 아닌 온 나라에 가득 차넘치고있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우리 조국에서는 그 그리움속에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 강성부흥의 래일이 마중하고 있는것입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어 감사합니다.

* * *

조선의 선택-선군

조국에서 12월 24일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받들어 모신 뜻깊은 날이다.

23번째의 년륜을 아로새기는 이날을 맞이하는 조국인민들은 한평생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조선이 선택한 선군의 길이 천만번 웃았음을 절감하고 있다.

우리 조국이 걸어온 성스러운 투쟁사에서 고난의 행군시기로 명명된 1990년대 중엽의 정세는 준엄하였고 시련은 겹쌓였다.

이전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었고 조선인민들은 뜻밖에 대국상을 당하였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은 때를 만난듯이 우리 공화국의 《붕괴설》까지 내돌리며 고립압살책동에 미쳐 날뛰었으며 경제적난관과 자연재해까지 겹쳐들어 인민들은 생활상타격도 받고 있었다.

자주적군위병이 되느냐, 또다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조선의 선택에 대하여 세계가 초점을 모으고 있던 그때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변함없이 걸으신 길은 선군의 길이였다.

선군은 곧 자주이고 존엄이며 애국애족이다!

이런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박솔초소에 큰 걸음을 찍으시여 선군정치가 조선의 어제와 오늘, 래일의 전략적로선임을 다시금 선언하시였다.

민족의 존엄, 인민의 행복을 지키는 사회주의 수호전의 그 나날 조국의 무수한 길들마다에는, 굽이굽이 뻗어간 령들마다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의 자욱이 찍혀지지 않은 곳이란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도와 더불어 빛나는 지명들도 생겨났다.

철령과 오성산, 1211고지와 351고지, 판문점과 초도…

그 가운데서도 철령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의 상징으로 우렷이 솟아 빛나고 있다.

철령이라고 하면 예로부터 오르면서 40리, 내리면서 40리로 아흔아홉굽이나 된다는 험한 산세로 알려져 있다. 이곳 지형이 얼마나 험하였으면 옛사람들이 《신령도 손바닥만 쓸면서 뒤걸음

질 친다.》라고 하였겠는가.

그런 령을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넘으신 날은 진눈까비가 쏟아진 뒤여서 가뜩이나 험한 령길에 도로상태까지 말이 아니였다.

그이께서는 최고사령관이 전선길을 알자면 직접 차를 몰아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굳이 운전대를 잡으시였다. 야전차행렬이 철령을 가까이하자 일군이 더는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가 없어 철령에서만은 운전대를 넘겨주실것을 간청하였다.

그이께서는 그 일군에게 공연한 걱정을 한다고 하시며 차를 힘있게 몰아 철령의 굽이길을 치달아오르시였다.

또 어느해인가는 철령을 넘어 최전연을 찾으신 그이께 인민군장병들이 이제 더는 험한 철령을 넘지 말아달라고 청을 드리였을 때 그이께서는 이만큼 철령을 넘었으면 나에게 철령졸업증을 주겠단 말이자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고나서 최고사령관이 전선이 위험하고 천길낭떠러지가 무섭다고 비켜선다면 누가 나의 병사들을 찾아가겠는가, 언땅에 배를 불이고 밤을 지샐 때 고향집생각보다 먼저 최고사령관을 더 잊지 못하며 그리워하고있는 병사들을 앞에 두고 나에게서 철령졸업증이란 있을수 없다, 나의 철령행전선길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안녕을 위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군대와 인민이 그토록 바라던 철령졸업증을 끝끌내 받지 않으신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밤에도 새벽에도 선군장정의 머나먼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주체84(1995)년 1월 1일 다박솔초소에 거룩한 발자취를 아로새기신 때로부터 그이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시찰하신 무력부문의 단위수만 하여도 2 490여개에 이르고 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갖 고생을 다하시며 넘고넘으신 선군장정의 험한 령길들이 있어 오늘 공화국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존엄멸치며 이 땅우에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안아오고 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평화를 지켜가시는 령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때로부터 어느덧 3년이라는 나날이 흘러갔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여 조국에서는 날에 날마다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이 창조되고 민족자주위업은 더욱 끽뜻이 이어지고 있다.

국력중의 제일 국력은 군력이다. 군력이 강해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도 수호할수 있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부강번영도 이룩할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습니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을 따라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은 이 땅의 평화와 인민의 행복을 지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헤쳐오신 험준한 전선길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한다.

주체103(2014)년 새해를 맞으며 인민들이 축원의 인사를 올리기 전에 먼저 온 나라 모든 가정들에 더 큰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해주신 원수님께서 년초에 처음으로 찾으신 곳도 인민군부대였다.

이렇게 시작된 그이의 한해 였고 그이의 혼신속에서 비약해온 조국의 한해였다.

언제나 군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전투훈련과 사격경기도 지도하시고 때로는 조선인민군 해군지휘성원들의 수영능력도 판정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몸소 잠수함에도 오르시여 해병들에게 멸적의 힘과 용기도 안겨주시고 백전백승의 전법도 가르쳐주신 그이의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지도는 조국땅 한끝의 외진 섬초소로부터 적아간의 총구가 대치하고 있는 최전연초소들에까지 이어져있었다. 그 나날에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는 더욱 완성되었으며 조선인민군은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다.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강자들의 흥정물로 되고 피로써 이어온 귀중한 력사도 한순간에 빛을 잃게 된다시며 끊임없이 걸으시는 그이의 전선시찰길은 이 땅의 평화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를 똑바로 알게 하여준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조국의 군사적역제력은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고 있고 막강한 군사적잠재력은 조선반도평화수호의 근본담보로 되고 있다.

이것은 선군정치야말로 무적필승의 총대로 외세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물리치며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나라의 공고한 평화와 조국통일을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만능의 보검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온 한해 《키 리졸브》,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 등 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은 미국은 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턴》호, 《B-52》 핵전략폭격기까지 끌어들이며 그야말로 핵광기를 부리였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도발과 위협, 북침핵전쟁광기에 조선인민군은 정의로운 자위권행사로 당당히 맞서나갔다. 미국의 침략적도전은 조국의 군대와 인민을 놀래우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때로부터 흘러온 3년이라는 나날은 결코 길지 않은 나날이다.

그 나날에 민족의 부강번영과 조국의 평화수호를 위하여 우리 원수님처럼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신 령도자나 최고사령관을 력사는 일찌기 알지 못하고 있다.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령도를 따라온 길에 민족번영의 새시대가 있다는것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이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윤영일

차광수가 찾은 길

(전호에서 계속)

이렇게 늙은이들부터 교양한 다음 야학도 나오고 강연도 하고 사람들 속에 어울려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마을을 흥성거리게 만들어놓았다. 마을 사람들은 차광수 선생이 하는 것과 같은 사회주의라면 자기들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혁명 사업에 발벗고나섰다.

나는 차광수가 신안둔에 자리잡은 다음 토요일이면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한테 찾아가곤 했다.

그때 우리는 적들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길림교외의 수수밭이나 강냉이밭 속에 들어가 학생복을 농민복으로 갈아입고 하였다.

신안둔에 가서 차광수의 사업 경험도 듣고 그의 일손도 도와주었다.

그 과정에 나는 차광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도 나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우리가 차광수를 통해 신안둔마을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던 어느 날이었다. 차광수가 길림에 나타나 나를 북산공원으로 잡아끌었다.

공원의 나무그늘 밑에 자리를 잡았을 때 그는 허률이라는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허률은 통정에 있는 동홍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혁명사업에 관계했는데 법정대학에 다니려고 얼마 전에 길림으로 왔다가 학비 곤난으로 포기했다고 하였다. 차광수가 허률에 대해 관심

을 가지게 된 것은 그의 배경 때문이었다.

그가 하는 말이 허률을 길림에 파견한 사람은 김찬이라는 것 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차광수는 김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놀랐다. 김찬으로 말하면 우리 나라 초기 공산주의 운동에서 거물급이었다. 그는 1차 공산당 때 선전부 책임자로 일하였고 2차 공산당을 결성할 때에도 주도적 역할을 높았다.

그후 체포의 위험이 닥치자 상해로 가서 조선공산당 상해부를 조직하였다. 김찬은 화요파의 대표적인 물로서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의 실질적인 조직자였다.

그가 자기의 영향 밑에 있는 청년을 길림에 파견한 것은 우리에게 눈독을 들이였기 때문이었다.

길림에서 우리가 공산주의 기발을 들고 청년 학생 운동을 벌리고 있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져 가자 그도 우리에게 주목을 돌리게 된 것이다. 우리의 세력이 확대되니 똑똑한 사람들을 보내어 자기네 물을 먹여보려는 것이었다.

김찬 자신도 길림에 와서 청년 학생들과 많이 접촉하였다. 그는 강연도 여러 번 하였다. 나도 김찬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다. 《맑스주의 대가》가 강연을 한다고 해서 차광수와 함께 그가 숙소로 리용하고 있던 대동문 밖 리금천의 집으로 갔는데 혁명 실천에 해를 주는 무

식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말았다.

김찬은 그날 자기네 파가 조선혁명의 《정통파》라고 하면서 다른 파들을 훨씬 뛰어났다. 지어 그는 조선혁명이 무산혁명이기 때문에 오직 로동자와 빈고농만 혁명의 동력으로 될 수 있고 다른 모든 비프로레타리아적 요소들은 혁명의 동력으로 될 수 없다는 당치 않은 주장까지 하였다.

나는 그때 김찬의 연설을 들으면서 그의 주장이 인민 대중에게 혼란을 주고 혁명 실천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위험한 궤변이며 그런 궤변과 투쟁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옳바른 공산주의 운동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았다.

차광수는 같은 심정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런 줄도 모르고 김찬을 중배해 왔다고 하였다.

그 당시 종파분자들은 자기 파의 세력을 늘리려고 도처에서 청년들에게 손을 뻗치였다. 그때 엠팔파의 안광천이라는 사람도 흰 두루마기를 입고 길림에 나타나 공산주의 운동의 《수령》으로 행세하면서 자기 세력을 뻗치려고 했다.

그는 한때 엠팔파 공산당의 책임비서를 한 일도 있어 자존심이 이만저만 높지 않았다. 길림에는 그를 《맑스주의 대가》로 중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안광천이 이름난 리론가라고 차광수가 말하기에 나도 우리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좀 얻어들을 수 있을가 하여

두어 번 그를 만나보았다. 만나고 보니 그도 김찬이처럼 연설을 멋들어지게 하였다.

처음에는 그의 연설을 들으면서 다들 감탄하였다. 그런데 그 인상이 얼마 가지 못하고 인차 뒤집혀졌다. 안광천은 대중운동을 무시하는 망발을 했다. 그는 국제당이나 큰 나라의 힘을 빌면 대중투쟁이 없이도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선과 같이 작은 나라는 대중투쟁을 하느라고 헛되게 피를 흘릴 것이 아니라 큰 나라의 덕으로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협력하였다. 참으로 사상루각을 지으려는 것과 같은 황당한 궤변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도 역시 김찬과 같은 공리공담쟁이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에게 선생님의 말씀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들이대었다.

선생님은 대중투쟁을 양보면서 공산당은 왜 조직했고 공산주의 운동은 왜 하는가, 이 길림에 와서 사람들에게 혁명에 결기하고 부르짖는 것은 또 무엇 때문인가고 반문하였다. 그리고 대중을 각성시키고 끓어 세워 투쟁에로 부르지 않는다면 몇 사람 안되는 공산당지도부를 가지고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과 자기 인민을 믿지 않고 남의 덕에 독립을 이루려는 것은 망상이라고 론박하였다.

안광천은 우리가 너무 수준이 어려서 말할 상대가 안된다 는 듯 한 태도로 그런 걸 이해하려면 쓴맛단맛을 다 보아야 하는 거야 하고는 너털웃음을 웃으면서 가버리었다.

그 후부터 우리는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종파분자들은 그

때 《조선혁명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이라느니, 《만주의 조선 인거주지역에서 먼저 사회주의를 건설해보자.》느니 하는 따위의 좌경기회주의 리론을 들고 나오는가 하면 《조선혁명은 부르죠아민주주의 혁명이며 민족해방이 당면한 목적인 것만큼 혁명에서 령도권을 민족부르죠아지가 장악해야 한다.》는 우경기회주의 적리론도 들고 나왔다.

종파분자들 가운데는 조선파 같이 정치적 조건이 불리한 특수한 환경에서는 사상운동은 할 수 있을지 인정 정치 운동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독립이 선차이고 혁명은 후차》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세계 무산 혁명을 완수하자.》는 초혁명적인 구호로 대중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와 차광수는 신일용 같은 사람들과도 리론투쟁을 하였다.

많은 종파분자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들은 레외없이 공명주의와 소부르죠아영웅주의에 물젖은 행세군들이었고 고질적인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이었다.

이 날 나는 차광수에게 김찬이 아무리 소문난 인물이라고 하여도 종파에 이끌리 난 사람인 것 만큼 환상을 가지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들을 대할 때 그의 명성과 경력, 지위를 보기 전에 앞서 그의 사상과 혁명에 대한 입장, 인민에 대한 관점부터 먼저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차광수는 공산주의 운동에 첫 발을 들여놓은데 지나지 않는 우리가 김찬과 같은 거물과 등을 지기보다는 손을 잡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 그랬다고 하면

서 허률과 당장 인연을 끊겠다고 하였다.

그가 이렇게 태도를 달리하는 바람에 나는 심중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허률이 종파에 때묻은 사람이라면 지체 없이 모든 관계를 끊어버려야 하겠지만 잠시 길을 잘못든 사람이라면 교양하여 같이 손잡고 나가야 했다. 우리는 허률을 직접 만나보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나는 차광수의 안내를 받아 허률이 있는 강동마을로 갔다. 길림에서 송화강다리를 건너 돈화쪽으로 얼마쯤 가면 통답산이란 산이 보이는데 그 산밑에 있는 마을이 강동이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반제청년동맹 조직을 나오고 군중을 교양하여 장차 신안둔과 같이 혁명화된 농촌으로 꾸릴 결심이었다.

허률을 만나보니 사람이 착실하고 진지했다. 어느 모로 보든지 종파의 구렁텅이에 빠지라고 내버려두기에는 아까운 동무였다.

나는 차광수를 불여 그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한편 나자신도 강동마을에 자주 가서 여려모로 도와주었다.

허률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종파의 줄을 박으려고 왔던 그가 나중에는 종파를 반대하여 김찬과 등을 돌리며 대개 되었다. 우리는 마침내 강동마을에 혁명 조직들을 내오고 그에 기초하여 온 마을을 혁명화할 수 있었으며 허률을 《敦. 仁》의 핵심 성원으로, 후에는 반제청년동맹과 공청의 지도 성원으로 키울 수 있었다.

(글)

명월구에 새겨진 사연

중국의 동북지역에는 지난 세기 조선의 민족해방위업과 더불어 뜻깊은 사연을 안고 있는 곳이 많다. 그 가운데는 당시 연길현에 속해있었던 명월 구도 있다.

바로 그곳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지도밑에 주체20(1931)년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혁사적인 당 및 공청 간부회의가 진행되었다.

혁사에 일명 겨울명월구회 의로 알려진 회의는 그해 9월 《만주사변》을 도발한 일제가 대륙을 침공함으로써 정세가 급격히 변화된 때에 열리였다. 일제는 만주를 침공하면서 《후방의 안전》을 위하여 조선인민에 대한 반동공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였다. 무고한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는 일제의 탄압에 격분한 조선인민은 적의 무력적인 탄압에 폭력적인 진출로 대답하였다. 조성된 정세는 반혁명적무력에 혁명적무력으로 맞서 싸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의 정세를 깊이 통찰하시고 애국적 인민들을 항일무장투쟁으로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본회의에 앞서 예비회의를 여시고 회의안건과 회의참가자, 회의순서 등의 문제를 토의하시였다.

회의에는 차광수, 리팡, 채수항, 김일환, 양성룡, 오빈, 오중화, 오중성, 김철을 비롯하여 40여명의 열혈청년들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동장영을 비롯한 중국공산주의자들도 여러명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장투

쟁에 대한 구상을 중국말과 조 선말을 엎바꾸어가며 연설을 하시였다.

본회의에서는 무장투쟁을 하되 어떤 형식의 무장투쟁을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론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무장투쟁형태가운데는 역사적으로 정규전과 유격전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정규전이 불가능한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는 기존관례에 구애됨이 없이 유격전이 주도적인 투쟁형태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시였다.

당시 회의에 참가하였던 일부 사람들은 현대적인 정예무기로 장비된 일제침략군을 국가적 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그것도 남의 나라 영토에서 유격대와 같은 비정규적인 무력으로 이겨낼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의 일을 회고하시면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국권도 영토도 자원도 다 빼앗긴 망국노의 아들들이다. 지금은 남의 나라 땅에서 결방살이를 하는 적수공권의 청년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주저없이 도전해나섰다. 무엇을 믿고? 인민

을 믿고 항일전쟁을 시작하려고 결심하였다. 인민이 국가이고 인민이 후방이며 인민이 정규군이다. 싸움이 시작되면 전민이 병사가 되여 일어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벌리게 될 유격전은 인민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장시간의 론쟁을 거쳐 유격전을 기본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문제에서 완전한 의견합치를 보았다.』

유격전을 기본으로 하여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벌릴데 대한론의가 끝나자 회의에서는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방도를 협의하였다. 그 방도로서 혁명무력건설문제, 무장투쟁을 위한 대중적지반을 축성하는 문제, 조중인민의 반일공동전선을 형성하는데 대한 문제, 당조직사업과 공청사업을 강화하는데 대한 문제를 론의하였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카륜회의 [주체 19(1930)년 6월 30일-7월 2일 진행]에서 반일민족해방운동을 그 최고단계인 무장투쟁으로 이행시키려는 조선민족의 의지가 확인되었다면 명월구회의에서는 그 의지가 거듭 확인되고 《무장에는 무장으로, 반혁명적폭력에는 혁명적폭력으로!》라는 구호아래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항일전쟁이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명월구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의 시초를 열어놓은 중요한 회의였다.

오늘 선군의 기치높이 민족의 번영을 힘차게 이루어나가는 조선인민의 투쟁은 명월구에 새겨진 그 나날과 맥을 잇고있다.

하기에 재중동포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곳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민족해방위업을 빛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기고 있다.

본사기자 조선일



수기

여사를 그리는 마음 속에 암아

나도 어머니처럼 노래를 사랑하였는데 단발머리처녀시절때부터 가사나 시쓰기를 즐겨하였다.

내가 지금까지 창작발표한 수백편의 시와 가사 작품들 가운데는 김정숙녀사를 그리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은 작품들이 많다.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가사 《오산덕기슭에 백살구꽃 피네》, 《영원한 우리 어머님》과 시 《첫눈 내린 아침에》, 《신갈파나루터에서》 등을 꼽을수 있다.

현실속에서의 체험이 없이 좋은 작품을 기대 할수 없기에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내 고향 량강도 김정숙군(당시의 신갈파)에만도 여러차례 다녀오기도 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1년전의 12월 어느날에도 그려하였다.

신갈파나루터에 서니 사적비의 비문에 새겨진 글발들이 가슴에 뜨겁게 새겨져왔고 김정숙녀사의 자애로운 모습이 추억깊은 물결에 실려오는 것만 같았다.

김정숙녀사께서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아안고 신갈파나루터에 서시였을 때 찌그러진 쪽배의 노젓는 소리는 그대로 조국의 설음거운 신음소리로 들리여왔을것이였다.

바로 그 나루터에서 일제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유격대원호물자를 나르며 너사께서 지새우신 밤은 그 얼마였겠는가.

너사에 의하여 이름없는 한척의 쪽배도 혁명의 련락선이 되었고 압록강은 너사의 그 업적을 길이 전하며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굽이쳐흐를것이라는 격정의 웨침이 나의 가슴속에 차고 넘쳤다.

그것이 바로 시가 아닌가. 나는 단숨에 봇을 달렸다.

지금도 나는 변함없이 김정숙녀사에 대한 시를 쓰고있다.

소학교 2학년생인 8살난 손녀 풍아가 내 책상 결에 앉아 두눈을 깜빡이며 묻고있다.

『할머니는 왜 자꾸만 시를 쓰나요?』

그 물음에 대답한다 해도 당장은 그 애가 이해 할수 없을것이다.

하지만 그도 크면 김정숙녀사를 칭송하고 따르며 그리는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와 같고 압록강의 흐름처럼 변함이 없음을 꼭 알게 될것이다.

평양시 중구역 보통문동 현채련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맹원)

자주적리상의 실현을 위해

오늘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만유인력과도 같은 힘을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 끊임없이 파급되고 있다.

올해에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조직들이 결성되거나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조직들로 명명되었다.

지난 2월 일본에서 진행된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련락회 결성집회에서 연설자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련락회가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깊이 연구보급하여 21세기를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세기로 만들 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자주성을 확립하는 것과 함께 주체사상신봉자대렬을 더욱 늘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4월에는 나이제리아 주체사상 연구 전국위원회가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로 명명되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에서 명예위원장으로 모시였다.

이 위원회 위원장 알 하산 맨 무함마드는 의식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인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신 것은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 진보적인 лю에게 있어서 커다란 혁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다.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는 인

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 활동으로 김일성 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을 빛내이고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을 그분들의 존함과 결부시켜 부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칭송하는 목소리들이 날로 높아가는 속에 주체사상연구와 보급, 소개선전 활동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었다.

평양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세계 자주화사업』에 관한 주체사상토론회와 네팔의 까뜨만두에서 『주체사상과 지역의 자주적발전』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 관한 아시아지역 주체사상토론회가 진행된 것을 비롯하여 올해에 타이, 영국, 베니, 방글라데슈, 끼르기즈스탄, 에티오피아, 폴로비아 등 많은 나라들에서 연구토론회, 강연회, 업적토론회들이 진행되었다.

오가미 쟁이찌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을 비롯한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단들과 대표들, 주체사상신봉자들은 평양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주체사상, 선군정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리론을 포괄하고 있는 현시대의 진보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세계인민들에게 자주와 독립의 길을 밝혀주고 있다고 열렬히 격찬하였다.

라몬 히메네스 로페스 주체사

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겸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위대한 현실을 낳으며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 세계자주화사업을 추동하자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고 말하였다.

아시아지역 주체사상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아시아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인간의 자주적본성이 훌륭히 구현되고 자주화된 아시아를 하루빨리 건설하는데서 자기들이 지닌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나이제리아, 파키스탄, 빠나마, 베니, 스위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인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결결히 투쟁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 이시다』를 비롯한 로작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리고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적리상을 참답게 실현하며 그들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만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희망의 등대로, 향도적기치로 되고 있다.

본사기자 김솔미

과학기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평양에서 남포방향으로 차를 한참 달리느라며 둑달리 눈길을 끄는 공장이 있다. 공원속의 공장인가, 공장속의 공원인가 공장의 둑례에는 소소리 높은 나무들이 우듬지를 펼치고 있고 구내의 여기 저기에는 갖가지 파일나무들과 꽃들을 심은 화단들이 있다. 그리고 특색있게 꾸려진 사슴사와 양어못, 정각과 휴식터들과 어울려 여려동의 생산건물들이 푸른 지붕을 엎고 자리잡고 있다. 이 공장이 천지윤활유공장이다.

겉볼 안이라고 공장의 멋은 생산현장들에도 펼쳐져 있었다.

우리가 윤활유작업반현장에 들어서니 원료의 계량, 투입으로부터 배합, 저장,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들이 컴퓨터에 의해 감시 및 조종되고 있었다. 그리고 윤활유가 담겨진 도람통들이 자연경사식으로 설계된 굴대흐름선을 타고나오면 상표분무로보트가 그 곁마다에 상표를 새기고 있었다. 연 천수백m³의 생산면적을 가진 이곳에서는 불과 5명의 로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생산공정의 자동화, 정보화가 실현되고 유해, 육체로동이 없는 모습은 윤활유작업반에만 펼쳐진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작업반, 사출1, 2작업반을 비롯하여 통합생산체계가 수립된 공장의 어디

서나 볼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17년전에 창설된 공장의 첫 모습은 작은 부지면적에 몇대 안되는 어설픈 설비들이 있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지금은 공무, 동력, 열관리 등 생산보장부문으로부터 버섯재배장을 비롯한 후방기지에 이르기까지 공장운영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높은 수준에서 그흔히 갖추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가지수와 생산능력은 조업당시에 비해 각각 13배, 3. 9배로 장성하였다. 여기서 대량 생산되는 윤활유, 유압유, 변속기유, 부동액, 그리스를 비롯한 각종 제품들은 국제규격에 부합되면서도 우수한 특성을 가진것으로 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우리와 만난 기사장 한현일은 그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나라가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윤활유공업의 생소한 길에 들어선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았다. 현행생산, 후방사업, 공장꾸리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생산공정의 현대화에 총력량을 집중하였다. 그 과정에 하나를 얻으면 보다 큰 둘, 셋의 경제적실리를 얻으면서 분석실파

종합지령실





기술발전실부터 첨단수준에서 꾸려나갔고 우리가 개발한 조종프로그램들과 로보트로 생산공정들을 하나하나 현대화해나갔다. 우리는 지금도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그의 말대로 실지 공장에서는 작업반별, 개인별로 기술혁신경쟁이 벌어지고있다. 종업원들은 누구라없이 공장의 현대화추진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국산화된 윤활제를 더 많이, 더 질좋게 생산하기 위해 책을 읽고 토론을 하며 사색을 이어나가고있다. 그 앞장에 계철룡, 강석철을 비롯한 일군들이 서있다. 그들은 자체실무수준을 높이는 한편 부서와 작업반들을 몇개씩 담당하고 기

제품탕크



술학습강사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있다. 그들의 강의내용에는 윤활유분야는 물론 로보트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분야와 함께 외국어와 세계적인 윤활유공업발전추세도 들어있다. 그들은 일단 현장에서 창안된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크든, 작든 소홀히 대함이 없이 공장적인 토의를 진행하여 실천에 구현해나가고있다. 그리고 그 사업에서 실력이 높은 젊은 대학졸업생들이 기술적진보의 보폭을 앞장에서 더 크게 내짚도록 하고있다.

과학기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공장을 관리운영하는것, 이것이 천지윤활유공장의 항구적인 모

윤활유와 그리스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습이다. 누가 지식자원을 더 많이 개발하고 먼저 리용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발전속도가 좌우된다는것이 이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마음이다.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리광성



구내에 꾸려진 공원에서





철령아래

철령아래 사파바다 하면 조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만큼 소문이 났다. 몇 달전에는 그를 제목으로 한 노래까지 창작되였다. 한것은 강원도에 있는 철령아래 사파바다-고산파수농장이 몰라보게 전변되였기때문이다.

농장은 주체36(1947)년에 국영고산파수원의 이름으로 창설되였다. 당시 2개의 분장으로 구성된 농장의 파수밭면적은 180여정보였고 그의 80%이상이 야산과 구릉진 땅에 조성되어 있었다.

그러한 곳이 오늘 분장만 하여도 9개, 경지면적은 수천정보나 되는 대규모 파일생산기지로 전변되였다.

농장에는 파일생산부문과 함께 파일나무모생산기지와 쇠그물울타리공장, 건설, 운수, 창고, 편의봉사시설 등도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쇠그물울타리공장만 보아도 이곳은 록색건축에로 나아가는 시대의 발전추세에 맞게 그 모습이 공원속의 궁전처럼 꾸려져있으며 연신장,

사파바다

쇠그물장, 제관용접장, 형강생산장, 수지도포장 등 모든 생산공정이 흐름식으로 되여있다. 여기에서 대량 생산되는 라선형, 격자형의 쇠그물을 타리들은 농장의 생산환경을 보다 산뜻하게 보장해주고 있다.

돌이켜보면 농장은 최근년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 000여정보의 토지정리, 2 000여세대의 현대적인 농장원살림집건설, 수백여리에 달하는 파수원도로건설, 수백만그루의 파일나무모생산, 파일나무들의 성장에 필요한 수십만대의 콘크리트지지대생산과 세우기…

여기에는 이곳 근로자들의 피타는 노력이 깃들어있다.

그들은 빠른 기간에 농장을 세계적인 파일생산기지로 꾸릴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야말로 낮과 밤이 따로없이 이ák하게 노력하였다. 설비와 자재가 모자라고 공사에 난관이 수없이 조성되였을 때에도 주저없이 대중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공사를 진척시켜나갔다. 강원땅에 수십

년래의 강추위가 들이닥친 어려운 속에서도 기계화수단에만 의존함이 없이 함마와 정대로 산을 깎고 바위를 부시며 토지를 정리하였고 정대가 텅겨날 정도로 땅을 한삽, 두삽 파헤쳐 수많은 파일나무구뎅이들을 만들었다.

오늘 참관자들 누구나 감탄해 마지 않는 쇠그물울타리공장도 바로 그 투지와 열정으로 1만수천m³의 부지를 정리하고 생산 및 보조건물건설과 설비조립, 공장구내포장과 지대정리, 잔디와 나무, 꽃판목심기 등을 동시에 내밀어 단 50여일만에 일떠세웠다.

이곳에서 일하는 김설경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 7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또다시 우리 농장을 찾아오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창설된 고산파수농장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헌신과 로고속에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파일생산기지로 전변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장군님께서 발기하시였던 쇠그물울타리공장이며 농장의 파수밭 등을 일일이 돌아보시였습니다.

정말 고산땅의 전변은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농장을 여러차례나 현지지

도하시였던 장군님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농장을 현대적인 파일 생산 기지로 전변시킬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그 건설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해까지 우리 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



새집들이 기쁨에 넘쳐

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선군혁명령도의 상징인 철령을 바라보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위해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장군님을 생각하군 합니다. 그리고 인민들에게 더 많은 파일을 먹이려고 그토록 마음쓰신 장군님의 유훈을 기



부평원



고산파수농장 병원



고산파수농장의 돼지목장

어이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장군님에 대한 우리의 그리움은 그대로 불같은 열정으로 승화되고있습니다.》

철령아래 드넓은 평야에서 봄이면 봄마다, 가을이면 가을마다 꽃향기, 사과향기가 흘러넘치는 오늘의 고산파수농장,

지금 이곳 근로자들은 천지개벽 노래하는 선군세월 새 풍경아 고산땅이 꺼지도록 고산땅이 꺼지도록 파일대풍 안아 오세라고 노래부르며 일손을 멈추지 않고있다. 가까운 년간에 최고수확년도에 비하여

정보당 파일생산량을 4배이상으로 끌어올릴 목표를 세우고 파수원들에 대한 5차의 토양관리와 키낮은 사과나무들에 대한 관리, 질좋은 유기질 비료와 여러가지 식물성농약생산 등에 더욱 큰 힘을 넣고있다.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김성칠



쇠그물을타리공장



김일성김정일기금은 어떤 활동을 벌리는가

-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부리사장 김철호와 본사기자의 문답 -

기자 :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3년이 되여오는 지금 김일성김정일기금사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온 나라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그리움과 흄모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얼마전 우리는 해외동포들로부터 김일성김정일기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김일성김정일기금의 사명은 무엇인가.

김철호 : 우리 기금의 사명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신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영원히 빛내이며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아 교육, 보건, 환경보호, 인류의 평화와 진보에 기여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있다.

기자 : 기금활동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김철호 : 기금활동의 주요내용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여 조선민족과 세계 진보적인 류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받들어 모시도록 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지도적지침으로 하

여 조선의 실정과 요구에 맞게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를 일떠세우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무비의 담력으로 주체혁명위업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의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를 펼치시여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을 련전련승

에로 이끄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 거대한 역사적업적을 이루하시였다.

기금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지니신 인민사랑의 력사를 대를 이어 전하며 대원수님들에 대한 온 겨레와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사무치는 그리움이 충정의 기부에로 이어지도록 하는 활동을 벌리고있다.

인민들의 생활향상과 건강증진, 교육과 과학기술발전, 체육발전과 환경보호를 비롯한 사회의 여러 부문에 대한 후원사업도 기금에서는 기본과제로 내세우고 진척시키고있다.

기금은 많은 자금과 설비들을 후원한 기부자들과 단체들에게 해당한 평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협조전통도 발전시키고있다.

기자 : 기금의 조직구조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김철호 : 기금은 리사회를 최고지도기관으로 하며 리사회 아래에 사무국을 가지고 있다. 사무국은 행정조직국, 국내담당국, 해외동포담당국, 외국인담당국, 기금국, 선전국, 대외사업처, 기금총회사를 두고 있다.

기금의 본부는 평양에 있고 현재 중국의 단동에 지부가 있다.

기금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흡모하여 기금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려는 내외의 인사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회원제를 내왔다.

기금사업에 기여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들이 회원으로 될수 있다. 회원으로 가입할것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들은 사무국에 통지하고 해당한 절차를 거쳐 회원 또는 회원단체로 될수 있다.

회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시 편의를 보장받는 등 해당한 우대를 받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경제무역활동에서 기금리사회의 방조를 받는다.

기자 : 기금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와의 투자유치, 경제교류사업도 진행하는가.

김철호 : 기금은 총회사를 통하여 해외동포, 외국인들과의 투자유치, 경제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 *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이북》

지난 여름 강원도 원산시에 있는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야영을 한 탄자니아 토리에트 국제학교 학생 리누스 자말 파우스틴은 여러 나라에 야영을 가보았지만 이처럼 규모가 크고 멋있는 야영소는 없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도가 조선에 있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은 남조선의 한 자유기고가 쓴 글을 떠올리게 한다.

『사회의 가는 곳마다 …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이북이다. 그래서 미국의 종교지도자 까지도 북을 두고 <예수가 가서도 할 일이 없는 지상천국>이라 친양한것 아닌가.』

세월을 거슬러보면 예수는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속에서 리상적인 터전을 마련해주는 『구세주』로 중상되어왔다. 하다면 그 『구세주』도 일감을 찾을수 없는 나라, 공화국에서는 인권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가.

올해 웰남의 인터넷통신 전찌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에 대해 소개하면서 『여기에는 몇개 나라밖에 없다는 다목적렌트겐과 최신형의 CT, 초음파진

단, 심전도설비들이 장비되어 있다. … 누구나 무료로 치료받으며 효능높은 의약품들도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있어 사람들은 이곳을 너성들의 천국으로 부른다.』라고 전하였다.

이것은 단지 너성들에게만 차례지는 혜택이 아니다.

인권의 본질이 인간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주적권리임을 놓고 볼 때 공화국에서의 인권보장은 그 령역이 넓다. 그것은 공화국에서 실시하는 중요시책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전반적무료교육제, 전반적무상치료제, 어린이보육교양제, 근로자들에 대한 정휴양제와 사회보장제, 국가적부담에 의한 근로자들의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의 보장, 세금제도의 완전한 폐지…

돌이켜보면 그 시책들은 조건이 좋을 때에만 실시된것이 아니였다. 전반적무상치료제는 미제가 일으킨 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2(1953)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한편 주체36(1947)년 4월에 10여개에 달하던 정휴양소는 전시에도 계속 늘어나 1950

무료교육, 무상치료제의 혜택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조국인민들



년대말에 270여개, 1960년대말에 350여개, 1970년대말에 600여개, 3년전에는 800여개로 되었으며 각지의 공장, 기업소들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에 정양소들이 꾸려져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도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를 정상적으로 먹이기 위하여 주체75(1986)년부터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콩우유는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그 생산량이 1.2배로 장성하였다. 4년전 6월 29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자료에 의하면 당시까지 평양시내 탁아소, 유치원, 학교들을 찾아 콩우유차들이 달린 거리는 연 1415만여km로서 지구둘레를 350여회나 돋겼과 같다. 외신들이 북조선의 존재 자체가 어려운 때라고 평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에 대한 무료교육, 무상치료를 비롯한 모든 인민적 시책들이 어느 하루도 중단됨이 없이 실시되었다.

제국주의 자들의 반공화국 압살책동, 핵전쟁 침략책동이 극도에 달한 올해에도 위성과학자주택지구며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

우리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새해 신년사를 받아 안고 가슴을 들먹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감하게 된다.

돌이켜 볼수록 지나온 주체103(2014)년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조국땅에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놓은 한해였다.

올해에 조국인민들은 기본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은 현시기 우리 조국이 내세우고 있는 중요한 투쟁과업이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과 경공업, 농업을 비롯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생산적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하루빨리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건설에서 집중화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였다.

세포지구축산기지건설과 고산파수농장건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과 황해남도물길공사, 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국가적의의가 큰 중요대상건설에 힘을 넣어 방대한 건설을 몇해안에 완공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인민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3월5일 청년광산의 몰리브덴공장, 칼마식료공장을 비롯한 많은 대상들을 짧은 기간에 시대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움으로써 날을 따라 새롭게 변모되는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였다.

황해남도물길공사와 세포지구축산기지건설을 비롯한 대건설전투에 떨쳐나선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부닥치는 난관을 이겨내며 자연을 길들여

자살림집 등이 현대적으로 일떠서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진 현실, 연풍과학자휴양소며 평양육아원, 애육원이 훌륭히 일떠서 과학자들과 어린이들에게 국가적혜택이 베풀어진 현실, 조선서해의 자그마한 섬에 있는 2명의 학생들을 위한 섬분교에 많은 교편들이 보장된 사실 등은 공화국에서의 인권보장이 철저히 인민에 대한 존중, 인민에 대한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

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라는것이 지적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는 내용과 함께 인민이 누리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권리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법화되어 있다.

본사기자 흥정혁

건설의 대번영기를 마련하는 나날에

강성국가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황해남도물길공사는 110여리의 물길굴을 포함하여 500여리의 물길과 두개의 저수지, 잠관, 물다리 등 600여개의 구조물을 건설해야 하는 방대한 공사이다. 이 사업이 단순히 경제실무적인 사업이기 전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자각한 건설자들이 1단계공사를 올해중으로 완공함으로써 다음해부터 여러 지구에 생명수를 보내줄 수 있게 하였다.

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명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서부와 북부의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탄광들에서 굴진작업을 힘있게 내밀어 새 탄발을 마련함으로써 올해의 석탄생산량을 늘리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나라의 전반적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주체조선의 심장이며 선군문화의 중심지인 수도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하고 사회주의조국의 위용을 과시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훌륭히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모든 도, 시, 군들을 자기 고장의 얼굴이 나타나도록 다양하고 특색있게 건설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전개되었다.

그리고 농촌마을들이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으며 풍치도 아름다운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되었으며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파수원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되었다.

온 나라에 푸른 산, 푸른 들을 펼치고 도시와 농촌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나갈 때 조국강산을

마련하는 나날에

사회주의본래가 살아나는 인민의 강산으로 일떠세우려는 인민의 넘원이 실현될 수 있다.

올해에 인민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고 집을 한채 짓고 거리를 하나 형성하여도 인민들의 요구와 생활상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였으며 인민들이 리옹할 보건, 체육 및 문화후생시설들과 공원, 유원지, 정휴양소와 소년단야영소건설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세상에 둘도 없는 로동자들의 호텔, 아이들의 멋쟁이궁전으로 훌륭히 솟아났다. 또한 건설에서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편리성을 철저히 구현하고 조형화, 예술화를 최상의 경지에서 실현한 연풍과학자휴양소,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일떠서 나라의 과학기술중시, 인재중시정책의 정당성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전당과 평양육아원, 애육원, 북부철길을 비롯한 수많은 대상건설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인민들에게 천만복을 안겨줄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조국땅에 일떠선 모든 건축물들은 인민의 손에서 창조되어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참답게 이바지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늘날 모든 건축물들을 건축미학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하고 선군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세우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

주체의 사회주의건축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

중제일주의건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건설부문에서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수준의 훌륭한 건축물들과 인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건설을 많이 하여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어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씨는듯 한 무더위속에서도 중요대상건설장을 찾고 또 찾으시며 건설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군대와 인민을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는 선군시대에 건설되는 모든 창조물들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설 수 있게 하여주었다.

인민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을 수많이 일떠세우고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았다.

이 나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나아갈 때 인민의 모든 꿈과리상이 현실로 꽂혀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반드시 일떠서게 된다는 것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게 되였다.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은 더욱 힘있게 휘몰아치며 그 열풍속에 창조와 혁혁의 새 력사는 더 활짝 펼쳐진다는 것이 우리 조국의 궁지높은 현실이다.

조국강산을 사회주의본래가 살아나는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려는 구상과 의도는 반드시 현실로 꽂혀나게 될 것이다.

내각 과장 립치준

선군정치와 조선의 현실

서는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렬강들의 패권주의적 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온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인류자주화위업실현을 추동하는 행진곡인 선군인터넷나쇼날의 노래가 높이 울려퍼질 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도서는 4가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4월 평양을 방문했던 방글라데슈선군정치연구소 조서기장인 엠. 아흐메드 카이사르가 쓴 도서 『동방조선에서의 10일간』은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열흘간에 걸친 평양체류기간 여러 참관지들에서 받은 감동과 느낌이 일정별로 서술되어 있다. 혁명의 성지 만경대고향집과 당창건기념탑,

국제친선전람관을 비롯하여 도처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과 명승지들은 조선로동당의 력사와 업적, 조선의 찬란한 문화와 전통, 문명하고 고상한 도덕적풍모, 날을 따라 개화발전하는 조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필자는 전반적무상치료제,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의 혜택아래 부럽없는 생활을 누려가는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과 그로부터 받은 자기의 감동을 깊이있게 서술하였다.

* * *

체육강국을 지향해 나가는 조국에서 체육문화기
지들이 새로 건설되거나 개건되어 체육인들과 인
민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

올해 3월에 개건된 청춘거리 체육촌도 그중의
하나이다.

구체적인 가르침

평양시의 만경대구역에 있는 청춘거리 체육촌
이 건설된 것은 주체77(1988)년 9월이다.

그때로부터 청춘거리 체육촌은 체육인들의 훈
련과 국제, 국내경기보장에 이바지하여 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해 3월 몸소
청춘거리 체육촌의 여려곳을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어려있고 나라의 체

면모를 일신한 청춘거리 체육촌

육발전과 세계 여러 나라들파의 체육교류에 적극
이바지해온 체육촌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
시킬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경기장, 경기판들의 원래의 모습을
살리면서 개건할 것은 개건하는 방향에서 잘 보수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봉구경기관, 탁구경
기관을 비롯한 종목별경기관들을 돌아보시고 방음
과 온도보장대책, 조도 등을 비롯하여 개건과 관
련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였다.

지난해 5월과 7월에도 청춘거리 체육촌개건을
위하여 그이께서는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였

다.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지난해 5월초 개건
의 첫 동음높이 울리며 긴장하게 일판을 벌려 수
십만m³의 내외부미장과 내부라일붙이기, 도로포
장 등 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올해 3월 세련미와
웅장함이 어울린 종합적인 체육문화기지로 훌륭하
게 개건해놓을수 있었다.

훈련과 경기, 생활에 편리하게

총 154만여 m³의 넓은 부지에 20여개 종목의

40여개 세부종목경기를 동시에 진행할수 있는 서
산축구경기장, 봉구경기관, 탁구경기관, 경경기
관, 수영경기관을 비롯하여 체육촌의 모든 경기
장, 경기판들의内外부가 말그대로 새옷을 갈아입
고 때벗이를 하였다.

특히 어느곳이라 할것없이 어제날의 모습을 찾
아볼수 없을 정도로 내부가 현대적미감에 맞게 훌
륭히 꾸려졌다.

종목별경기진행에 필요한 빛조건을 충분히 보
장할수 있는 조명설비들도 국제경기수준에서 보
장되었으며 체육인들이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훈
련과 경기를 마음껏 할수 있게 온도보장체계도 완
벽하게 갖추어져있다.

서산축구경기장과 여러 경기판마다에 심판원
실, 기자회견실, 약물검사실, 전술토의실, 선수대



탁구경기장



력기경기장



중경기장



봉구경기장



바드민턴경기장



경경기장



수영경기장



서산축구경기장



개건된 경기판들에서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체육인들

기실 등과 록화편집물보급실, 육체훈련실과 암마실을 비롯한 편의시설들이 잘 꾸려져 있어 그 어떤 국제경기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다.

경기판들에는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한 첨단수준의 종목별 심판체계가 도입되어 있다.

7 000여 m²의 건평을 가진 수영경기판만 하여도 주로에 전자득점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조마다에 오존소독설비들이 있다. 여기서는 수영, 물에 뛰어들기, 수중체조무용, 수구 등 여러 종목에 대한 훈련과 경기를 진행 할 수 있다.

서산축구경기장의 관람석이 1 500석이나 더 늘어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경기판에 이동식관람시설들이 설치되어 늘어나는 관람수요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종합육체훈련관에서의 육체훈련

글 본사기자 염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조선의 관광지들을 찾아서 (3)

- 개성지구 -

이번호에서는 개성지구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름답고 오랜 역사 가지고 있는 개성은 평양에서 171km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조선의 첫 통일국가인 고려(918년-1392년)의 수도였던 개성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조선의 국토량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이 어려있는 분계연선도시입니다.

주체102(2013)년에 개성지구의 12개 역사유적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개성으로 가는 로상에서는 1억 8천만년전의 공룡발자리화석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조선의 국토량단과 분열의 아픔을 안고 있는 판문점을 소개하겠습니다.

판문점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과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곳입니다. 개성에서 약 8km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이 고장이 미국과의 전쟁과 평화에 관한 치렬한 담판장으로 되면서부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곳으로 되었습니다. 판문점구역에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친필비와 정전담판회의장, 정전협정조인식장,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이 있으며 통일각과 판문각이 있습니다.

정전담판회의장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과 미국측이 주체40(1951)년 10월부터 주체42(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담판을 진행한 장소입니다. 이 건물은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에 의하여 단 5일 동안에 건설되었으며 주체42(1953)년 7월 27일 오전 이 집에서 정전협정이 조인되었습니다.

원래 이 건물은 11세기 초엽에 고려의 별궁인 대명궁으로 건설하였던 것인데 그 후 순천관(외국사신들을 들이던 숙소), 승문관(유교교리에 관한 사무를 보는 기관) 등으로 리용되어오다가 성균관의 전신인 국자감(992년 창설)이 이곳으로 옮겨온 후 1308년에 성균관이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현재 고려시기의 력사를 보여주는 고려박물관으로 꾸려진 이 건물에는 귀중한 역사유적 유물들이 수 많이 전시 보존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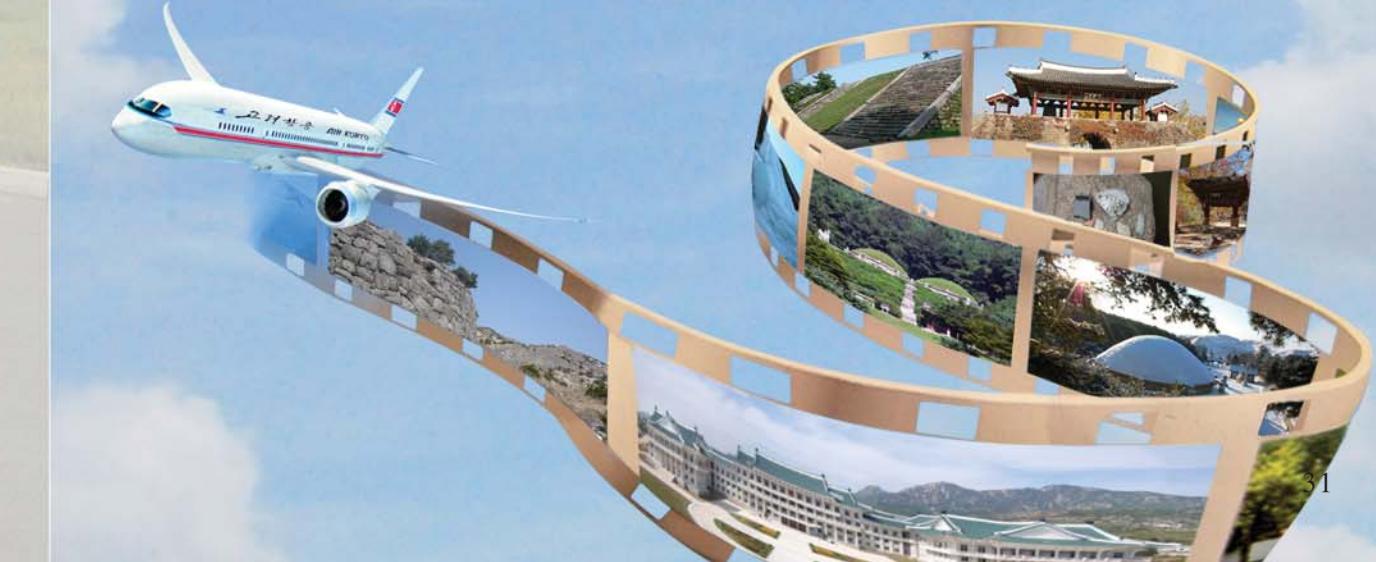
다음은 세계문화유산의 하나로 등록된 개성남대문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개성시 북안동에 있는 개성남대문은 개성성 내성의 남문으로서 1391년부터 1393년까지 세운 것입니다.
남대문축대우에는 조선 3대 명종의 하나인 연복사종(1346년 주조)이 있습니다. 연복사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종은 종소리가 맑고 우렁차며 40km밖에서도 들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조선의 역사유적 종들 가운데서 제일 큰 것으로서 고려시기의 높은 금속주조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유적입니다.

개성시내 중심에서 동북쪽으로 2km떨어진 곳에는 고려성균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려성균관은 고려시기와 조선봉건왕조시기 봉건국가의 관리양성을 목적으로 세운 최고교육기관(오늘의 대학과 같다.)이었습니다. 원래 이 건물은 11세기 초엽에 고려의 별궁인 대명궁으로 건설하였던 것인데 그 후 순천관(외국사신들을 들이던 숙소), 승문관(유교교리에 관한 사무를 보는 기관) 등으로 리용되어오다가 성균관의 전신인 국자감(992년 창설)이 이곳으로 옮겨온 후 1308년에 성균관이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현재 고려시기의 력사를 보여주는 고려박물관으로 꾸려진 이 건물에는 귀중한 역사유적 유물들이 수 많이 전시 보존되어 있습니다.



는 주체81(1992)년 5월 성균관을 찾으시여 우리 나라에 1 000년 역사가 가진 대학이 있는것은 크나큰 자랑이라고 하시면서 고려시기의 최고교육기관인 성균관을 계승한 경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을 창설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조선식건축술로 특색있게 건설된 고려성균관의 현대적인 새 교사가 옛 성균관건물의 서북쪽에 자리잡고있습니다.

왕건왕릉은 개성시에서 북쪽

형상한 돌조각상들, 고려인민들의 투쟁업적을 화폭에 담은 여러점의 미술작품들, 이 시기 건축술을 보여주는 룽문과 제당 등이 있습니다.

개성지구의 역사유적에는 중양서원도 있습니다. 중양서원은 중세서원의 건축형식을 보여주면서도 정몽주(고려 말기의 봉건국가관리이며 이름난 유학자)의 생애와 관련된 곳으로 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유적입니다. 중양서원은 학생



판문점을 돌아보는 해외동포들

으로 6km떨어진 해선리에 자리잡고있습니다. 조선의 첫 통일국가 고려의 진국시조인 왕건(877년-943년)의 무덤으로서 그의 생일 1 117돐이 되는 해인 주체83(1994)년 1월 31일 개전하였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의 하나인 왕건왕릉의 룽문앞에는 《고려태조 왕건왕릉개간비》라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친필이 새겨진 기념비가 세워져있으며 부지면적은 5만 5천m²입니다. 왕릉구역에는 왕건의 무덤과 그의 초상을 비롯하여 슬기와 용맹을 떨친 이름있는 문관들과 무관들을

들이 공부하던 강당과 숙소였던 동재, 서재로 이루어져있습니다. 1573년에 고쳐세운 지금의 건물들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만월대는 송악산의 남쪽기슭에 자리잡고있습니다. 조선의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의 왕궁터로서 부지면적은 125만m²이며 궁성면적은 약 39만m²입니다. 원래 달을 바라보는 대(집)라는 뜻에서 만월대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오랜 세월 전해져오면서 만월대로 되었습니다. 궁성과 황성으로 이루어진 만월대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

는데 그중에서 가장 웅장화려한 신봉문은 2층건물로서 왕을 비롯한 봉건관료들이 올라와 민속경기도 구경하고 군사들을 사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궁전의 중심건물인 회경전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에 수많은 건물과 룸각들이 배치되어있었으며 궁전주변에는 태평정을 비롯한 푸른 기와를 인 별궁들과 정자들이 있고 꽃나무, 파일나무 우거진 정원들이 있었으나 외적에 의해 불타버리고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습니다. 만월대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만월대의 서쪽에 자리잡고 있는 개성첨성대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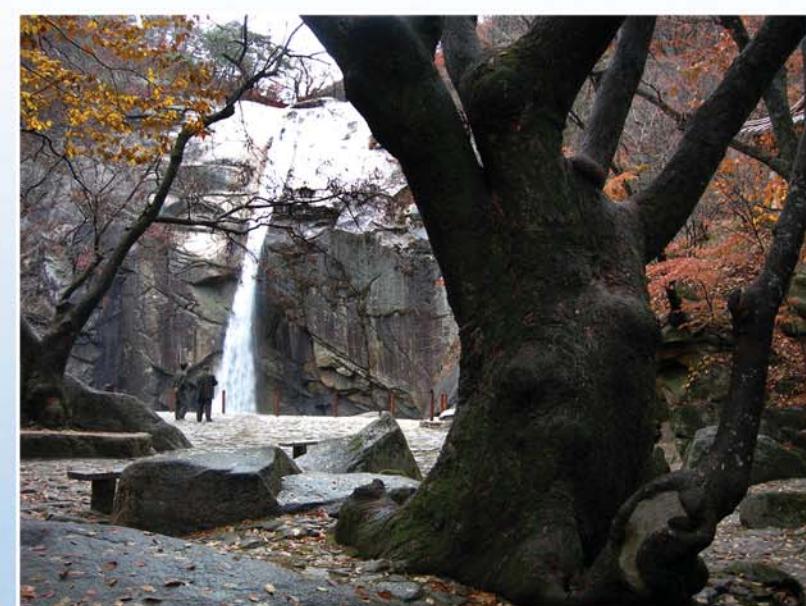
관음사는 박연폭포우에 있는 고려시기 산성인 대홍산성의 북문을 지나 1. 5km 올라가면 있습니다. 크지는 않으나 못 하나쓰지 않고 나무로 지은 건물로서 건축양식이 독특하며 장식에서 특징을 가지고있습니다. 관음사앞에는 7층돌탑이, 관음굴에는 그때의 관음보살상이 그대로 보존되어있습니다.

개성시내에서 북쪽으로 수십

리 떨어진 곳에 있는 박연폭포는 금강산 구룡폭포, 설악산 대승폭포와 함께 조선3대명폭포로 손꼽힐뿐아니라 16세기의 유명한 철학가 서경덕, 유명한 녀류시인 황진이와 함께 《송도3절》로 되고있습니다. 높이가 37m, 너비가 1. 5m인 폭포꼭대기에는 둘레 24m, 직경 8m, 깊이 5m정도의 박연이라고 부르는 못이 있고 폭포아래에는 고모담이라고 하는 둘레 120m, 직경 40m인 못이 있습니다. 박연에 물이 고였다가 떨어지면서 생긴 폭포라고 하여 박연폭포라고 부릅니다.

개성시내 중심에서 서쪽으로 14km떨어진 곳에는 공민왕릉이 자리잡고있습니다. 왕릉은 고려 31대 공민왕의 무덤으로서 왕비가 죽은후 왕자신이 설계하고 백성들을 동원하여 만든 왕과 왕비의 쌍무덤입니다. 1365년부터 1372년까지 건설한 공민왕릉은 무덤구역, 문관상구역, 무관상구역, 무덤의 제당이 있는 구역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무덤칸에는 벽화가 있는데 천정에는 해, 북두칠성, 삼태성

고려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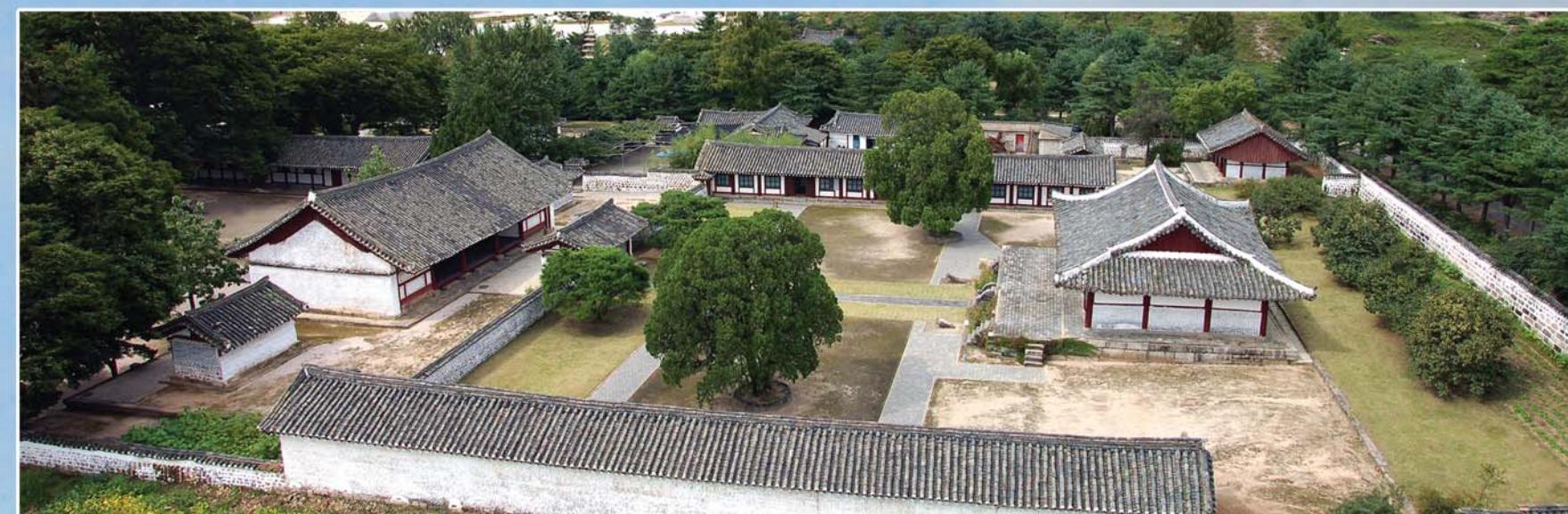
박연폭포

을 그렸고 동, 서벽에는 12지신을 그렸으며 무덤좌우에는 6각형의 망주석이 서있습니다. 살아움직이는듯 한 사람과 동물조각상들은 당시 고려의 화강석가 공기술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왕릉은 그 역사적 가치로 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개성지구에는 령통사와 선죽교,

묘충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보여주는 유적들이 많습니다. 또한 개성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훌륭한 약재인 고려인삼의 원산지입니다.

그럼 다음호를 기다려주십시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장애자들도 당당한 사회의 한 성원이다

조국에서는 장애자들의 인격이 존중되고 있으며 그들의 사회정치적 권리와 자유, 리익도 건강한 공민과 꼭같이 보장되고 있다.

사회의 당당한 한 성원이 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자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고국에서만 볼수 있다》

지난 6월 18일 2014년 국내장애인의 날 현황 모임이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장애인의 예술공연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다.



주수양

단 한번의 실수도 없이 공연을 진행하는 그를 보고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 성원들과 해외동포들은 장애자가 맞는가고 몇번이나 품씹어 물어보았다.

그러는 모양을 바라보는 주수양의 어머니 안성희의 눈가는 축축히 젖어들었다.

수양이가 조선장애인예술협회 예술부원 전경심으로부터 춤가락을 익혀가던 나날이 주마등처럼 떠올랐기 때문이였다.

음악이 끝났어도 춤동작을 계속하다가 얼굴을붉히던 이야기, 선생님의 손목에 이끌려 증폭기에 손을 대보며 음악의 리듬을 터득하던 이야기



신옥화

등 하많은 사연들이 소리없는 눈물로 되여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 성원들과 동포들에게 《우리 나라에서는 건강한 사람들이나 장애자나 꼭같은 사회적혜택을 받는다.》고 말해주었다.

공연을 본 중국 단동성휘무역유한공사 동사장 김영애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행복의 웃음을 짓는 얼굴은 고국에서만 볼수 있는 일》이라고 감동에 겨워 말하였다.

올림픽메달을 향하여

조국의 창광원에서는 올림픽메달로 향한 장애자들의 열기띤 수영훈련모습을 볼수 있다.

특히 량측대퇴절단장애자 심승혁(20살)의 훈련과정은 많은 체육감독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두다리가 없는 승혁은 올림픽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건강한 사람들의 육체적한계를 초월하는 배가의 노력은 기울이였다.

구간봉틀기, 체육기재를 리용한 상체힘키우기… 육체훈련에 힘을 넣어서인지 수영을 배워서 넉 달만에 그는 모든 헤엄방법을 터득하였다.

날이 갈수록 그의 수영기술은 늘어났고 속도도 예상외로 빨라졌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그의 수영모습을 보고 한 체육감독은 《경기에 참가하려는 심승혁의 의욕은 정상사람들을 초월한다.》고 하였다.

승혁의 수영감독 강호진은 말하였다.

심승혁



《승혁은 이전에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빛을 피하여 길도 에돌아다녔다. 하지만 지금 그는 사는 보람과 궁지를 안고 산다. 건강한 사람들과 꼭같이 수영경기도 진행하고 올림픽에도 출전할수 있다. 올림픽금메달수상자가 되겠다는것이 그의 마음이고 목표이다.》

그는 2014년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에 참가하였다.

애국의 마음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가?

조선장애인후원회사 로동자 신옥화(39살)는 늘 자기자신에게 이렇게 묻곤 한다.

장애인자라고 해서 사회의 짐이 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이 그의 견해이다.

그는 다리를 못쓰는 장애자이지만 장애자들을 위해 좋은 일을 도맡아하고있다.

장애인원아기금에도 참가하고 국내장애인의 날이나 국제장애인의 날(12월 3일)은 물론 장애자들을 위한 체육경기가 국가적범위에서 진행될 때에도 장애자들을 위해 꽂다발마련으로 부터 식사보장에 이르기까지 여념이 없는 그다.

제3차 아시아청년장애인경기대회에서 단체 2등을 하는데 기여한 탁구선수 마유철은 《내 성공의 뒤에는 옥화누이의 노력이 많이 깃들어있다.》고 말하였다.

옥화의 모습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시대의 벅찬 숨결이 느껴지는 곳마다에서도 새겨져있다.

룡양광산사람들은 노래 잘하고 시도 잘읊으며 수에도 잘 놓는 그를 오늘도 잊지 못해하고있다. (그가 룽양광산의 로동계급을 찾아가 로력투쟁을 고무해주었던것이다.)

그는 주체87(1998)년 10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수예작품 《나의 소원》파현지를 올렸다.

《장애인들의 건강은 국가가 관심한다. 최근에는 장애자들을 위한 문수기능회복원도 일떠섰다. 이런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싶다. 장애자라고 해서 조국을 위한 애국의 마음이 덜한것이 아니다.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는 내 이름이 보답의 자리에도 있어야 한다.》고 그는 자식들에게 말하곤 한다.

글 본사기자 김솔미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행복은 창조에 있다



문충생

《행복은 결과보다 과정속에 있다.》

의학대학원 약학연 구소 실장 문충생은 이 말을 가슴에 안고 한생을 살아오고있다.

먹기도 좋고 효능도 높은 의약품에 대한 인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앞으로만 나아가는 그를 두고 사람들은 불같은 사람, 정열가라고 말한다.

우리와 만난 문충생은 이야기에 앞서 한권의 두툼한 책을 내놓았다.

그것은 《고려약의 얇은층크로마토그램 및 자외선스펙트르자료집》이였다. 매 약초들에 대한 분석자료들이 얇은층크로마토그램과 해석곡선, 자외선스펙트르로 되여있는 책은 그가 걸어온 고심참담한 길을 말없이 보여주고있었다.

자료집의 갈피갈피를 펼쳐가며 문충생은 말하였다.

《행복은 결과보다 그것을 마련해가는 과정속에 있다, 이것은 제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이 책을 만들기 위해 걸어온 나날이 저의 행복이였고 기쁨이였기때문입니다.》

그가 자료집을 만들 결심을 한것은 지금으로부터 몇해전이였다.

어느날 저녁, 집에 들어서니 딸이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앓고있었다. 그래서 안해가 이런저런 약들을 구해왔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그의 생각은 깊어졌다.

(저 약들의 질을 무엇으로 담보하겠는가. 그 방도는 없을가.)

앓는 자식을 두고 무슨 생각을 하는가는 안해의 지정구도 그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생각은 깊어만졌다.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면 어느날 그에게는 목적하는 성분을 분리정량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수

있을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날,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약재의 성분을 정확히 분석평가할수 있는 감별방법을 연구하여 자료집을 만들면 고려약의 질을 높일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쳤다.

그의 생각은 곧 연구소의 심의를 거쳐 실의 과제로 설정되었다. 고려약에 대한 품질관리의 현대화를 위한 목표가 세워지고 분석실의 모든 성원들에게 연구 과제가 할당되었다. 매 성원들의 일연구정형을 종합하고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여주며 실험에 필요한 약재와 시약 등을 마련하는 일을 해야 하는 그도 연구과제를 맡아안았다.

제일 어려운것은 시료수집이

였다. 우에서 보장해주는 표준약재만으로는 실험에 필요한 과제를 자기 기일안에 수행 할수 없었다. 대학과 대상기관들에 의뢰하여 방조를 받느라니 자료가 어느정도 확보되었다. 그렇게 되자 그는 이쯤하면 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실의 교수 박사인 주성운의 노여움을 살줄은 몰랐다.

『실장동무, 우리가 제 이름이나 내려구 또 무엇을 하나 하였다는 평가나 받자구 이 사업을 시작하였소? 아니요. 나라에서 하늘처럼 떠받드는 인민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요. 섭섭하구만.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진 직접적 담당자라는것을 잊으면 안되지.』

(나라에서 하늘처럼 받드는 인민, 내가 그것을 잊다니...)

그는 머리를 들수 없었다. 그러느라니 지나온 날이 눈앞에 어려왔다.

일본의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 보낸 어린시절과 조국에 가야 재능을 꽂피울수 있다는 아버지의 말을 되새기며 귀국선에 올랐던 일이며, 해주의 학대학과 의학과학원 박사원에서 공부하던 날이며...

도법의 감정원과 어린이영양연구소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사람들에게서 축하의 꽃다발을 받을 때마다 그가 마음속에 간직한 생각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자는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일념뿐이였다.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연구사업의 생명인 자료확보를 위해 양덕군이며 강령군 등으로 다니는 나날에 그가 가슴속에 다시금 새겨안은것은 인민을 하늘처럼 대하는 마음이였다.

이렇게 마련된 약재들이 추출되어 얇은층크로 마토그램 프로그램으로 전개되었으며 거기에서 나타나는 반점들은 다시 사진으로 찍혀져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처리되어 매 반점의 크기와 색세기에 따르는 해석곡선으로 되었다. 한편 그 자료들은 자외선분광광도계로 측정되었다.

이룩한 성과가 가지는 의의는 참으로 컸다. 고려약의 품질관리를 과학적으로 함으로써 고려약의 치료효과를 담보할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진행하여오던 검정방법에서 벗어남으로써 제품의 질을 완전히 담보할수 있게 되었다.

그와 약품분석실 연구사들이 만든 자료집은 곧 전국의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고려약생산단위들에 배포 및 도입되었으며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존함이 모셔진 표창장을 받아았던 날 그는 말하였다.

『우리는 더 높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탐구가 멎을 때 저의 생도 끝나는것이기에 저는 애초에 결과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자료집집필에 달라붙었습니다.』

그의 탐구는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한신애



중국 길립성 연길시 장백로 56호 중국상공은행
연변금행 강설화 방 박춘숙동생 앞

우리 모두 조국에서 만나자

보고싶은 동생 춘숙아, 그동안 잘 있었니.

내 나이 여든이 훨씬 넘어 어느덧 아흔을 가까이하고보니 멀리에 있는 동생들 생각이 나날이 간절해지는구나.

이따금 나는 우리 자식들과 함께 너희들과 찍은 사진을 자주 보며 그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이군 한다.

솔직히 말해서 명색이 말이라는게 내아래로 줄줄이 다섯이나 되는 남, 너동생들을 잘 돌봐주지 못했구나. 내가 남편을 따라 조국에 와서 살다보니 멀리 있는 동생들 생각은 그저 마음뿐이다.

동생들에게 내 소식을 전하려고 펜을 드니 새삼스럽게 너희들 나이도 이제는 작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래 나 혼자 속구구를 다해보았다. 이역땅에서 많은 식솔들을 먹여살리느라 고생이 많던 어머니를 도와 너희들을 등에 업어 키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다. 춘숙이 나이는 일흔여덟살이 되었겠고 혹 내 기억이 틀리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동화는 일흔다섯살, 막내 동주는 예순여덟살쯤은 되었겠지.

난 지금도 50여년전 내가 시어머니와 남편을 따라 조국으로 떠나올 때 『언니, 부디 앓지 말고 행복하세요.』라고 하던 너의 말이 귀에 쟁쟁하다.

춘숙이 너의 소원대로 나는 조국의 품에 안겨 참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지금은 자식들의 부양을 받으며 여생을 편안



히 지내기만 하자니 손이 근질거려 재봉기를 돌려 장갑을 많이 만들어놓았다가 중요대상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에게 보내주기도 한다. 우리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이 자꾸만 쉬라고 권고하군 하는데 그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오류을 놀리는것이 보약을 먹는것과 같다고 말해주군 한다. 지금처럼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살아야 너희들도 만나볼수 있겠고 나날이 강성부홍하는 내 조국의 모습도 보면서 마음껏 락을 누릴수 있지 않겠니.

지금 맏아들과 둘째아들은 중앙기관 일군으로 일하다가 이제는 년로보장을 받았고 인조혈관을 연구하여 온 나라에 떠들썩하게 소문을 낸 맘랄 미화와 초급중학교 교장을 하는 둘째딸 미란이며 그아래 광근이, 미순이 등 모두가 다 잘 있다.

나는 셋째아들 광근이네 식구와 함께 동대원 구역의 덩실한 집에서 살고있다.

인물 잘나고 성격도 서글서글한 셋째며느리가 우리 큰집살림을 잘 꾸려나가고있다. 명절날이나 생일날들에 온 가족이 한번 모이면 정말 잔치집 같은데 낯색 한번 흐리지 않고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하는 등 식구들을 언제나 기쁘게 해주어 나는 그에게 늘 마음속으로 감사해하고있다.

너희들도 한번 오면 꼭 우리 집에서 묵어가 거라.

조국에 오면 보게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소식들이 련이어 전해지군 한다.

네가 동생들을 데리고 조국에 오면 우리 함께 미림승마구락부에도 가보고 문수물놀이장에도 가보자. 이젠 나이도 많아 말이야 어떻게 타겠냐만 그래도 너랑 같이 가면 용기를 낼지 알겠니.

춘숙아, 이제 얼마 있으면 새해를 맞을터인데 나라에 별로 한 일도 없이 또 한살 먹게 되였구나.

남은 생에 후회없이 조국에서 모두 만나 친혈육의 정을 한껏 나눠보자.

그날까지 건강하길 바란다.

평양시 동대원구역 동대원1동 52인민반
박옥신언니 씀

박고장의 풍치에 이끌려

평안남도 대동군은 오래전부터 박이 잘 나는 고장으로 알려져왔다.

때는 가을이라 맑고 푸른 하늘아래 한창 여물어 가고 있을 박 구경도 해 볼겸 우리는 대동군에 대한 취재길에 올랐다.

평양시 교외를 벗어나자 평안남도 대동군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석수물동포의 조카인 장정순이 살고 있다는 원천리로 먼저 갔다.

장정순의 집뿐 아니라 문화주택들의 지붕마다에 박년출들이 올리뻗어 있고 련잎같은 푸른 박잎사이로 박들이 데롱데롱 달려 있는 모양은 가을날 농촌마을의 정서를 한껏 자아내고 있었다.

올해 천다섯살이라고는 하지

만 얼굴에 언제나 웃음을 담고 있는 장정순은 나이보다 훨씬 어보였다.

우리는 시원한 집뜨락에 앉았다. 박고장에 왔으니 말꼭지도 자연히 바가지 이야기로 떼여졌다.

알고보니 장정순은 기막힌 박전문가였다.

그의 어머니 석남조는 생전에 해마다 많은 박을 심고 가꾸었다고 하였다.

하여 그도 봄에 박씨를 심을 때부터 수확을 하여 바가지를 만들 때까지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장정순은 주로 쓴박과 단박을 심은 하는데 쓴박의 씨나 속살은 간장질병과 여러가지 병치료에 특효가 있어 씨를 뽑지 않

고 통채로 말리운 쓴박을 얻으려 다른 고장사람들도 찾아오곤 한다는것이였다. 단박의 속살은 말려두었다가 나물반찬을 해먹으면 버섯이나 해파리료리에 비하지 못할 독특한 맛과 향기를 내는 고급료리가 된다는것이였다. 그러면서 다음해에는 판상용으로 가치가 있는 조롱박도 많이 심겠다는것이였다.

원천리의 그 어느 가정에서나 지붕은 물론이고 지어 돼지 우리우에도, 집뜨락에 심은 파일나무줄기와 가지를 따라올라가면서도 조롱조롱 달린 박들을 볼수 있었다.

우리는 최길남, 강춘실로인 부부가 살고있는 집에도 들려 지난해 집에서 따들인 박을 켜서 만들었다는 여러개의 바가

지들을 보았다. 그들에게서 바가지리용의 우월한 점과 사용법 등을 흥미있게 들으며 예로부터 슬기롭고 근면하며 깨끗한 살림살이를 하여온 민족의 우수한 전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었다.

박고장의 풍치에 끌려 시간가는줄 모르던 우리는 또다시 취재차를 달렸다.

읍지구의 원장국수집에서 이 고장특산물로 유명한 메밀국수도 몇그릇 축내고 대동종합상점에서 농토산물도 몇개 골라 사든후 우리는 군농기계작업소를 찾았다.

그곳에서는 군농기계작업소에서 만들었다는 소형탈곡기들이 기운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제 벼가을이 시작되면 논벌에서 직접 탈곡하여 난알을 꺼들이게 되는데 그 준비로 부하시 힘을 해보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봄 모내기철에는 자체로 만

든 모내는기계로 짧은 기간에 모내기를 끝내여 전국에 소문을 냈었다.

대동돼지목장에서는 돼지기르기를 잘하고있었다. 지배인 김영환, 기사 김명남의 말에 의하면 큰단백풀에 의한 돼지기르기는 경제적효과성이 대단히 높아 지난 시기보다 낱알사료를 훨씬 절약하면서도 고기생산량을 높인다고 한다.

연분홍빛이 도는 토실토실한 새끼돼지들과 육중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어미돼지들은 군살림살이를 더욱 흥하게 하려는 이곳 종업원들의 일솜씨를 엿보게 하였다.

해방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대동군인민들의 영락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곳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대동땅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항일의녀성 영웅 김정숙녀사, 우리 나라 반

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발자취도 뜨겁게 어려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토지를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신 때부터 대동군사람들도 제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으며 행복한 생활을 창조하였다.

우리는 군안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이 고장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된것은 고향땅을 사랑하는 이곳 사람들의 땀과 열정이 깃들어있기때문이라는 것을 더 잘 알수 있었다.

하기에 옛말에 나오는 흥부네 집처럼 지붕마다에 주렁진 하나의 박풍경도 평범하게 스쳐보낼수 없었던 우리들이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 옥

상식

단식초에 담근 마늘은
로인들의 건강에 좋다

자료에 의하면 로인 200명을 두 조로 나누어 같은 음식을 주면서 한조의 로인들에게는 식전에 단식초에 담근 마늘을 정상적으로 먹도록 하였다.

6달이 지나서 단식초에 담근 마늘을 먹은 로인들의 입맛은 눈에 띄게 높아졌고 위장병발병률도 그

것을 먹지 않은 로인들의 1/10밖에 되지 않았다.

단식초마늘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껍질을 벗긴 마늘을 사탕가루를 넣은 식초에 잠그었다가 며칠후부터 먹으면 된다.

지난 9월 평양에서는 제10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가 진행되었다.

뉴질랜드, 도이췰란드, 로씨야, 말레이시아, 몽골, 싱가포르, 스위스, 알제리, 에짚트, 오스트랄리아, 이탈리아, 중국, 꾸바, 프랑스, 뿐스카, 중국 대북에서 온 300여개의 무역회사 및 단체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와 여러 나라, 지역의 무역회사들에서

나라들 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하는 계기

출품한 금속, 기계, 전자, 운수, 농업, 의학, 경공업 및 식료일용제품들이 전시된 전람회는 나라들 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하고 다방면적인 경제무역거래와 투자유치, 과학기술교류를 광범히 벌리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었다.

전람회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와의 경제무역관계를 확대하고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전람회를 통하여 해외동포참가자들은 조국의 전반적 국력과 국제적 지위가 비상히 강화되고 강성국

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조국의 모습을 보았다.

전람회 참가자들은 앞으로도 평양국제상품전람회를 통하여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와의 경제무역활동과 과학기술교류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할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유선희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평양에서 첫 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가 열린 때로부터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간은 다같이 발전하며 함께 부흥하려는 인류의 지향과념원은 그 무엇으로 써도 막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지금 고국에서는 새로운 조선속도가 창조되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 있다.

고국에서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개발구창설과 과학기술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도 바로 국제상품전람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하여 더 빨리 수행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뉴질랜드, 도이췰란드, 로씨야,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300여개의 무역회사와 단체들이 참가한 이번 전람회도 바로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킬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번에 50여 m²나 되는 장소에 오토바이들을 전시하였다. 출품된 10여 종의 오토바이들은 고국인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더 편안하고 안전한 오토바이에 대한 고국인민들의 요구와 수요를 적극 충족시키기 위해 더 머리를 쓰고 사색해나가겠다. 그리고 고국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찾아하여 그들의 물질문화생활발전에 적극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에 대한 해외동포원호위원회의 키다란 관심과 기대가 있는 한 우리는 기업에서 꼭 성공할수 있으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중국 단동성민무역유한공사 사장 리영호

날로 발전하는 모습

나는 6년째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한다.

이 나날에 나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하여서도, 친절하고 상냥한 조선인민에 대하여서도 알게 되었다.

조선은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다.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이 막 알린다. 만경대고향집도 방문하였으며 미림승마구락부에도 가보고 여러 공연도 관람하는 과정을 통하여 조선은 올수록 정이 드는 나라라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매번 전람회에 참가할 때마다 느끼는바이지만 조선인민은 수준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제품의 성능과 질에 대하여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다.

우리 제품에 대한 판매가 잘될수록 나는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할 마음을 갖다듬군 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에 대한 인상이 매우 좋다.

나는 조선이 더욱 발전하고 번영하기를 바란다.

중국 단동홍식컴퓨터회사 사장 리치국



157가지 료리에 깃든 마음



김봉실

지난 8월 송도원국제소년야영소의 료리실습실에서 야영생들의 나라별 민족료리경연이 진행되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로씨야, 아일랜드, 웨남, 탄자니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야영생들은 하나같이 운두높은 료리사모자를 쓰고 흰 앞치마까지 척 두르고서 저마다 음식감들을 지지고 볶고 튀기며 법석 끊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중국에서 온 해외동포야영생들은 한 녀인의 방조 속에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김밥을 만들고 있었다. 중국 료녕성 심양시에서 살면서 재중동포야영생들을 이끌고 조국에 온 그 동포녀인(김봉실)은 야영생들에게 밥의 간을 맞추는 방법이며 음식을 그릇에 보기 좋게 담는 방법 등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었다.

보아하니 그는 료리에 조예

가 꽤 깊은듯싶었다. 아니나다를가 경연이 끝난후 그는 우리에게 자기의 사진기에 수록된 많은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그가 만들었다는 오이김치, 통배추김치, 감자볶음, 양꼬치구이, 랭면 등 갖가지 료리의 사진들이 있었다. 세여보니 모두 157가지나 되였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흔히 음식맛은 손맛에 많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료리도 예술인것만큼 그것을 만들 때나 그릇에 담을 때 연구를 많이 하여 품을 들어야 맛을 잘 살릴수 있습니다.》

그리면서 그는 료리의 맛을 돋구기 위한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여름에 오이나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만들 때

김치국물을 찬물에 양념을 타서 만들면 김치가 인차 시그리지고 물크러진다, 하지만 간장, 식초 등 양념을 탄 물을 팔팔 끓여 식힌 후 부으면 오이나 배추가 기일이 지나도 아삭아삭해지고 색깔도 고운 상태로 유지된다, 이때 김치국물을 맑게 하기 위해 간장대신 소금을 이용할수 있다, 한여름에 이런 김치를 차게 하여 먹으면 입안이 산뜻해지고 밥맛을 돋운다, 그 김치국물에 닦고기가루나 소고기가루같은것을 넣으면 랭면육수로써 그저그만이다, 감자를 얇게 썰어 볶음을 만들 때에는 식칼대신 채칼을 이용해야 입맛이 보다 부드러워진다, 완성된 음식을 그릇에 담을 때에는 감자의 노란색에 조화를 맞추어 빨간 고추와 푸



조선료리실습을 하고있는 재중동포소년야영단 성원들

른 고추를 이용하여 장식하면 눈맛이 있으면서도 감칠맛을 살릴수 있다, ...

이야기마저 구수하게, 재미나게 펴나가는 그의 상식 주머니는 바닥이 없을듯싶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가 무척 돋보였다. 그는 지금까지 누구나 흔히 먹는 음식감들을 이용하여 료리들을 다양하게, 홀륭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동포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식생활을 보다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였다. 그를 위해 때로는 김치며 국수와 같은 민족음식에 대해 연구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하나의 료리를 놓고 그 조리방법과 그릇에 담는 방법도 거듭 반복하였다.

송도원국제소년야영 기간 야영생들의 모래모형 만들기가 진행될 때 동포야영생들이 조종의 산 백두산의 모형을 만들도록 이끌어주고 그들에게 백두산에 대해, 민족에 대해 설명해주던 김봉실동포이고 보면 그의 마음속 지향을 십분 가늠할수 있었다. 그는 가정에서도 어린 두 자식에게 사람은 그 어디에서 살든 자기 민족의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교양한다고 한다.

오늘 그가 만든 료리들의 맛과 향기는 동포들의 생활 속에 깊이 흘러들고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홍정혁

상식

《당정유고》

《당정유고》는 18세기말-19세기 초엽에 활동한 량반출신의 진보적 문인인 김려(호는 당정, ?-1821년)의 작품들을 모은 시문집(12권)이다.

김려는 련산현감, 함양군수 등을 지낸 일이 있으나 당대에 진보적인 사상조류를 이루고 있던 실학사상에 공명하였으며 근대적인 과학문화의 발전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심을 돌리였다. 그는 천주교를 전파하는데 관계하였다 혐의로 부령과 진해지방에서 귀양살이를 하였는데 이때 많은 글과 시들을 썼다고 한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없어졌다.

《당정유고》는 그가 죽은 후 남아있는 시와 산문들을 수집정리하여 편찬한 것이다.

제1권-제6권에는 시초 또는 시집들이 실려 있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매개 시편의 마지막에 창작동기, 시에서 나오는 인명, 지명, 사건 등을 설정한 주제를 달고 있는 것이다. 제1권에 실려있는 『귀현관시초』는 귀양살이할 때 지은 97수의 시들을 묶은것이며 제2권에 실린 『간성춘예집』은 주로 인민들의 생활세태를 소재로 한 시 230수로 엮어진 시집이다. 제3권의 『의당별고』는 부령과 진해지방의 풍속과 생활세태를 반영한 시들, 류배지에서의 저자의 생활 감정과 애국적지향을 노래한 83수의 시작품들이다. 제4권의 『만선와잉고』는 여러가지 나무와 풀, 과일과 남새, 꽃, 그릇, 일용품들을 소재로 한 71수의 시집인데 단

순히 자연을 노래한것이 아니라 그

와 관련한 구체적인 생활계기들을 가지고 시인의 서정적 체험을 읊은 것이다. 제5, 6권에 실려있는 『사유악부』는 진해와 부령에 있던 시기를 회상하여 읊은 272수의 악부시로 엮어진 시집인데 저자의 진보적인 사상과 미학적립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된다.

제7권-제11권에는 산문체의 글들이 실려있다. 제7권의 『감담일기』는 부령으로 귀양가는 저자의 내면세계와 그가 본 동해안일대의 자연과 생활이 묘사되어 있다. 제8권의 『우해이어보』는 진해를 중심으로 한 남해바다에서 서식하는 물고기들과 그것들의 생태학적 특성을 기록한 책이다. 제9권은 전기 체형식으로 쓴 8편의 단편소설집 『단량쾌사』이다. 이 작품들은 사상주제면에서 주목되는 작품들이다. 제10, 11권의 『총서제후』, 『창가루외사』, 『한간외사』는 100여편의 서평집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 제12권은 『보유집』인데 여기에는 서사시 『방주의 노래』와 단편적인 시작품들, 편지, 기문, 제문 등이 실려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서사시 『방주의 노래』이다. 이 서사는 김려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며 19세기 초엽 진보적 시문학이 달성한 성과를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의 하나이다. 작품은 방주를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묘사를 통하여 봉건사회에서 버림받고 있던 인민들의 아름다운 정신도덕적 품모를 보여주고 있다.

* * *

노래속에, 기쁨속에

-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일군대표단을 비롯한
재중동포들 -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을 돌아보았다.



조국을 방문하는 해외동포들 속에서 자주 울려나오는 노래가 있다. 노래 《조국찬가》와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일군대표단,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대표단,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대표단, 중국 심양시로인협회대표단을 비롯한 재중동포대표단 성원들 속에서도 이 노래가 울려나왔다.

그들은 평양의 거리마다에 펼쳐진 화단들을 바라보면서 이국의 들가에 피여난 꽃도 내 나라 꽃보다 끊지 못했소라고 노래를 불렀고, 경치아름다운 만경대를 찾아 우물에서 물

을 떠마시면서도 벗들이 부어 준 한모금 물도 내 고향 샘처럼 달지 못했소라고 노래를 불렀다.

조국방문의 나날 그들은 그 노래 속에 마식령스키장이며 송도원 국제 소년 단야영소, 만수대 창작사 등 많은 곳을 돌아보았고 그 기쁨 속에 원산 앞 바다의 출렁이는 맑은 물에 몸을 잠그고 마음껏 해수욕도 하였다.

조국의 꽃 한송이, 물 한모금도 무심히 대하지 않고 귀중히 여기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누구라 없이 이름 못할 격정이 그득히 차있었다.



만수대창작사에서



대동강맥주공장 참관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중
남지구협회 회장 김송미동포
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품은 비록 이역
에 있어도 조국에 대한 그리
움을 안고 삽니다.

그 그리움은 곧 우리 민족
의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여
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
과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고 그분들을 영원히
민족의 어버이로 높이 모실

충정의 마음입니다.』

돌이켜보면 실지 지금까지
바로 그 마음을 안고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끊임이 걸어
온 그들이다.

하기에 그들은 조국방문
기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
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자기들의 충
정의 마음을 다시금 굳게 가
다듬었다.



옥류아동병원을 돌아보았다.



국립연극극장에서 혁
명연극 《승리의 가치
따라》도 관람하였다.



글 본사기자 조선일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미림승마구락부를 돌아보고

미림승마구락부를 돌아보니 저도모르게 눈시울이 젖어옴을 금할수 없다.

멋지게 건설된 미림승마구락부가 평범한 인민들의 문화생활에 고스란히 돌려지고 있다는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었는데 이곳에 와서 제눈으로 직접 보니 놀랍기만 하다.

참으로 꿈이 아닌 현실이였다.

조국에서는 인민이 바라는 꿈과 리상을 그대로 현실로 꽂아주고 인민의 요구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있다.

기름진 말을 타고 승마주로를 누벼나가며 마음껏 웃고 떠들며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느라니 미림승마구락부에 깃든 철세위인의 발자취가 숭엄하게 안겨왔다.

미림승마구락부에는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 김정일대원수님과 꼭 같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심한지도와 정력적인 정도의 자욱이 깃들어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훌륭한 미림승마구락부를 인민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흙먼지 날리는

건설장에 새벽에도 오시고 깊은 밤에도 찾으시였다고 한다.

그이의 마음속에는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신 인민이 있었다.

인민을 위한 길에서 락을 찾으시고 인민의 기쁨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는 원수님이시기에 인민은 그이를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림승마구락부만이 아니라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은하과학자거리도 훌륭하게 세워주시였다.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크나큰 민족적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모든 지혜와 정력을 아낌없이 바쳐나가겠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장봉해



고국을 알게 되였다

이번에 나는 처음으로 고국땅을 밟았다.

나의 부모의 고향은 길주이다.

사람에게는 다 자기의 근본이 있다. 그러나 그 뿌리를 잊고 살면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는 유명무실해진다. 젊었을 때 나는 몰랐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만진다.

그래서 언제부터 나의 조상이 살던 조선에 온다는것이 한생을 총화할무렵에야 머리에 흰서리를 이고 찾아왔다.

꿈결에도 가보고싶던 고국에 오고보니 내가 왜 이제야 이 땅을 밟았을가 하는 후회가 앞선다.

이국에서 태여나 오래동안 살아온것으로 하여 고국의 인민들과 비록 언어는 잘 통하지 않았어도 친혈육의 따뜻한 정은 그 어디에 가서 그 누구를 만나든 끝없이 오고갔다. 매일 하루 세끼 먹는 조

선민족음식도 우리가 이국에서 만들어먹던 음식들과는 그 맛이 대비도 되지 않게 좋았다.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봐도 고국의 하늘이 더 높고, 더 푸르게 안겨왔으며 흥겨운 노래, 춤가락에도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민족의 생활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이번에 나는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고 국가선물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평양민속공원 등 여러곳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고국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고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 길을 따라 백전백승의 한길로 나아가는 고국의 장한 모습도 가슴에 새겨안게 되였다.

고국방문의 나날에 나는 온 세계가 우러러 경모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고국의 래일은 더욱 휘황찬란할것이라는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였다. 아울러 조선민족된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통일애국의 길에 여생을 바칠 결심을 다시한번 가다듬었다.

로씨야 연해변강 빠르찌잔스크시 김태복



고국에 큰절을 드린다

무릇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고향과 조국이 있다.

몸은 비록 그 어디에 가있어도 자기 조상의 땅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감정이야말로 참으로 고상하다.

나는 로씨야에서 태여났지만 조선에는 나의 선조의 뼈가 묻혀있다. 우리 부모님은 너무도 어릴적에 고향을 떠나 로씨야로 이주해왔다. 그들은 고향에 가면 자기의 많은 친척들이 살고 있을것이라고 늘 말하였지만 눈을 감을 때까지 한번도 고향땅을 밟아보지 못하였다.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소원을 내가 언제든 이루고 싶었다.

허나 나는 70고령에 이른 오늘에야 비로소 고국을 찾아왔다.

고국은 내가 상상하였던것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하였다. 사람들 모두가 생면부지였지만 낯설지 않았고 순간에 정이 들었다.

그리고 평양은 깨끗하고 건축물들 하나하나가 독특하였다.

나는 여려날에 걸쳐 평양의 거리들과 기념비적 건축물을 돌아보았다. 모든것이 다 마음에 들었다. 수도의 중심거리에 높이 솟은 고층, 초고층의 호화

주택들에는 간부들이 아니라 로동자를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나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과학토론회에 많이 다니며 견문을 넓혔지만 고국처럼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나라는 처음 보았다.

서방세계가 떠들어대는 것처럼 고국은 가난하고 침략적인 나라가 아니였다. 사람들이 기아와 빈궁에 허덕이고 거리에서 는 총, 폭음이 울리는것이 아니

라 사람들 모두가 화목하게 살면서 사회주의 문명국을 건설해나가고 있는 리상사회였다.

고국의 인민들은 이 모든것이 선군의 덕이라고 말하고 있다.

선군이라는 말에는 군사를 국사 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추동해나간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만약 100여년 전 조선봉건왕조 시기에도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웠다면 총칼을 든 외세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을것이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고향을 등지고 남의 나라 땅으로 떠나지 않았을것이다.

누군가가 이미 평한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으로 손꼽히우고 있는 조선민족은 그 어디에 가서 살아도 슬기로움을 멎치고 있다.

나의 아버지는 에디슨처럼 유명한 과학자가 되기를 바라며 나의 이름을 에디슨이라고 지어주었지만 철이 든 후 나는 그 에디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결심을 안고 에디스로 이름을 고쳐지었다.

모스크바 국립 기술 종합대학(당시)을 졸업하면서 박사가 된 나는 오늘까지 그 대학에서 교수로 있다. 몇 해 전에는 로씨야 조선인 과학자 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는 학자로서 정치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중립을 견지해 왔었다.

그러나 지난 기간 나는 자신이 조선 사람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그래서 안해도 그렇고 사위, 며느리도 다 조선 사람을 선택하였다. 나는 민족의 혈통을 지킬 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으



로서의 존엄을 지키자면 자기의 힘, 높은 실력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하기에 나는 이역 땅에 살면서 조선민족의 궁지와 존엄을 실력으로 담보해보자고 과학연구와 교육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그러나 나는 고국을 돌아보고 민족의 궁지와 존엄은 민족성원 몇몇 사람의 지혜나 명성에서 오는것이 아니라 고국이 위대할 때만이 높이 떨쳐지고 빛나게 된다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되였다.

실지 고국은 참으로 어려운 속에서도 선군으로 정치군사 강국의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치며 강성국가라는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민족성원들 모두에게 존엄은 물론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다.

나에게 조선 사람의 진정한 존엄과 궁지를 깨닫게 하여 준 고국에 큰절을 드린다.

로씨야 조선인 과학자 협회 회장 전 에디스

한해의 취재수첩을 펼치고

2014년 새해의 종소리를 들으며 희망으로 가슴부풀던 때가 어제같은데 벌써 이해의 마지막달이 왔습니다.

지금 동포여러분과 함께 12월의 마지막장을 번지는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깊은 추억에 잠겨있습니다. 이 시각 우리는 동포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듯 통일애국의 마음이 그대로 비껴있는 취재수첩을 조용히 펼쳐봅니다.

여기에는 하나하나 적혀있습니다.

새해의 첫 아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신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읽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역사적 문건에 생애의 마지막 친필을 남기신 20돐이 되는 올해에 어떻게 하나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여러분의 결의도 있고,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이 조국의 인민들과 함께 태양절과 광명성절, 전승절 등을 뜻깊게 경축하기 위하여 머나먼 하늘길, 바다길을 달려 평양으로 온 사연도 있습니다.

지난 기간에도 그려하였듯이 올해의 태양절에 일본과 중국, 로씨야와 미국, 오스트랄리아에서 사는 동포들은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와 춤을 안고 조국으로 와서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를 보다 이채롭게 장식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중국에 사는 최경호, 황해월동포도 있고 미국에 사는 우륵교향악단 단장 리준무동포도 있으며 국제교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의 남별, 태애순동포도 있습니다.

그뿐만아닙니다. 동포들은 자기들이 정성껏 피운 불멸의 꽃 김일성화를 평양에서 열린 제16차 김일성화축전장에 전시하였습니다.

김일성화김정일화보급회 회원인 연변과학기술대학 부총장 최룡호선생은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전체 조선민족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신 민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태양의붉은꽃들을 더 아름답게 피워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의 취재수첩에는 동포들이 조국에 와서 여레곳을 참관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내용들도 다 적혀있습니다.

릉라꼽등어관에서 꼽등어들의 여러가지 기교와 『인어공주』의 매력적인 룰동과 자태에 빠져 넋을 잃을번 하였다던 국제교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무용배우들의 목소리도 있고, 통악산에서 조개구이맛이 유품이라던 재로씨야동포들이 식당배 『대동강』호에 올라 대동강의 밤정서에 빠져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야기도 있습니다.

삼복의 무더위때에는 재중동포들의 자녀들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야영생활을 즐기었습니다. 그들을 이끈 중국 료녕성 조선족애심기금회 사무국장 김경자동포는 처음에는 고국에 호기심을 안고 왔지만 참으로 많은것을 배우고 간다고 진심을 토로하였습니다. 어린 마음들이 조선동해의 바다가 모래불에서 백두산을 형상해놓고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라는 글자까지 새긴 사진을 우리 잡지에서 다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조국의 경치를 보고싶어하는 충동은 비단 소년들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9월초 칠보산관광의 길에 올랐던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성원들도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에 반하였을뿐아니라 조국의 강성부흥을 위하여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일념으로 가슴불태웠습니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해나갈 동포들의 애국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둔 해였습니다.

올해가 조선사람들이 로씨야땅에 정착하여 살게 된 때로부터 15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국제교려인통일련합회 제1부위원장이며 로씨야교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인 김칠성동포는 로씨야-조선반도종단자동차행진을 진행 할것을 발기하였습니다.

재로동포들은 조국해방의 날인 8월 15일을 맞으며 백두산정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백두-한나> 자동차행진』 출정식을 진행하고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들과 혜산시와 함흥시, 원산시를 거쳐 세계의 명산 금강산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평양과 판문점을 돌아본 후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정말이지 동포여러분과 함께 조국에서 흘러보낸 뜻깊은 나날을 미쳐 다 적지 못하는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럼 이해의 12월을 보다 뜻깊게 보내고 새해 1월의 지면에서 다시 만납시다.

『금수강산』편집부

부여의 정치구조에 대하여

부여는 단군조선(전조선)의 멸망과 함께 그의 후국으로 있던 부여후국이 독자적으로 분립하여 세운 노예소유자국가의 하나이다.

B. C. 15세기 중엽부터 B.C. 219년까지 존재하였다.

부여후국의 통치배들은 전조선의 지배에서 벗어난후 부여계통의 세력 및 주민지역들을 통합하여 고대 국가의 면모를 갖추어나갔다.

부여에는 전조선에서와 같이 왕과 전체 노예소유자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연한 국가통치제도가 확립되어있었다.

부여에서는 왕권이 기본적으로 왕족안에서 세습적으로 이어졌으며 후왕제를 두고 광활한 령토와 인민들에 대한 지배권을 실현하였다.

관직제도에서도 부여는 전조선의 영향을 받았다. 부여에는 중앙관료로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양가, 록가로 구성된 6가가 나라의 일정한 지역을 맡아 전국에 대한 왕의 통치를 실현하였다.

그리고 왕실에 최고관료로서 상을 두었는데 그것은 모든 관료들을 총괄하여 국가정사를 처리하면서 국왕의 통치를 보좌하는 고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밖에도 중앙과 지방의 구체적

행정실무를 처리하는 대사, 대사자, 사자 등도 있었다.

부여는 제가평의회와 같은 귀족민주주의적 합의기구를 통하여 노예소유자계급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판결과 형벌집행, 왕위계승과 법제정, 전쟁과 대외관계 등 수시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토의하고 그 집행을 실현하였다.

부여의 통치배들은 국왕이 직접 관할하는 직할지역과 방위별에 따라 여러 가들이 다스리는 4개 지역으로 나누고 그 밑에 말단행정단위로서 읍락을 설치하여 평민과 하호, 노예를 비롯한 피착취근로대중과 전국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였다.

부여에서는 노예소유자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관습법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리익에 맞는것을 골라 수정보충하거나 필요한 행동규범을 새로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법을 제정하였으며 국가권력이 강화됨에 따라 보다 정비완성하였다.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법조항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노예)로 만든다.
- ② 남의 물건을 도적질한 자는 도적질한 물건의 12배에 달

-구운 개도 다리를 떼고 먹어라
무슨 일이나 앞뒤를 심중히 고려하여 안전하게 행동하는것이 제일임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나그네 귀는 식자다
나그네는 주인의 눈치를 잘 알아차리므로 소곤소곤하는 말까지 다 듣는다는 뜻으로 손님이 있는데서 그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것을 경계하여 이르는 말.

-닭알섬 다루듯 (한다)
깨지기 쉬운 닭알을 담은 그릇 다루듯 한다는 뜻으로 매

우 조심스럽게 다름을 비겨이르는 말.
참고: ①닭알섬 모시듯 ②닭알꾸메 모시듯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느라
비록 든든하고 밀을만한것이라 해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확실한가를 다시 알아보고 행동하는 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식은 죽도 불이기며 먹이라
식은 죽도 뜨거울지 모르니 불어가며 조심하여 먹으라는 뜻으로 무슨 일이나 틀림이 없을듯 한 일조차도 따져보고 랑께가 없도록 조심하여 하라고 경계하여 이르는 말.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철

부여왕 대소(통치년간 ?-B.C. 219년)는 동족 국가인 고구려가 날로 번성하는데 은근히 불안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고구려가 더 강해지기 전에 병합할것인가 하는데 골몰하고 있었다.

어느날이였다. 부여왕의 한 신하가 머리가 하나이고 몸뚱이가 둘인 붉은 까마귀를 얻어 가지고 와서 왕에게 바쳤다.

『이게 무슨 불길한 징조인가.』

부여왕은 보기에도 끔찍하고 피이한 까마귀를 놓고 얼굴을 찡그렸다.

『이것은 불길한 징조인것이 아니라 대길할 징조입니다.』

『이런 괴상망칙한 짐승이 나라난것이 어찌 대길할 징조라 하느냐.』

신하는 까마귀의 형태를 하나하나 설명하였다.

『까마귀란 원래 검은것인데 이렇게 빛이 변하여 붉게 된것은 앞으로 시국이 변한다는것을 예언해주는것이옵니다. 그리고 몸뚱이가 둘인데 머리가 하나로 된것은 앞으로 왕께서 부여와 고구려를 병합해서 통치하리라는것을 예언해주는것이옵니다.』

『파시 네 말이 옳다. 그것은 내가 항시 바던것이다.』

왕은 몹시 기뻐하며 까마귀를 들고 어쩔줄 몰라하였다.

그러더니 신하들에게 그 까마귀를 좋은 조롱에 넣어 고구려왕에게 선물로 보내라고 하였다.

『아니, 이것을 어찌 고구려에 보내라 하십니까?』

그러자 왕은 그들을 한번 둘러보고나서 호기있게 말하였다.

『우리 나라에 이와 같은 징조가 나라난것을 무엇때문에 우리 혼자만 알고있겠느냐? 이런 까마귀가 예언해주는 뜻을 고구려가 알고있어야 그들도

우리에게 병합되는것이 피할수 없는 운명이라는것을 느끼고 순순히 굽어들게 아니냐?』

『천만지당하고 현명한 생각입니다.』

신하들은 왕의 지시대로 까마귀를 고구려왕에게 『선물』로 보내였고 부여왕은 그날부터 고구려왕의 답장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드디어 고구려에 갔던 신하가 그곳 왕의 편지를 가지고 돌아왔다.

부여왕은 신하의 보고를 들을새 없이 고구려왕의 편지부터 먼저 뜯어보았다. 편지를 읽어가던 부여왕의 낯색이 변하였다. 부여왕은 노발대발하여 소리쳤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야, 응?』

왕이 내던진 편지의 내용은 대체로 이러하였다.

『… 원래 검은것은 북방의 빛이고 붉은것은

남방의 빛이다. 이제 북방의 빛이 남방의 빛으로 변했으니 이것은 북이 남방의 모양으로 될것이라는 예언이 아닌가. 그리고 붉은 까마귀는 상서로운것인데 얻기는 그 나라에서 얻었지만 우리

에게 밟겼으니 앞으로의 대경사가 북에 있지 않고 남에 있도록 하여주었다. 그 고마움에 더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

『그래, 고구려가 도리여 우리를 병합하겠다는 말이 아닌가?』

왕의 물음에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렸다.

『그렇다고 합니다. 상서로운 까마귀를 자기네 가졌으니 앞으로의 경사도 자기네 나라에 있다는것입니다.』

『뭐라구, 그래 까마귀를 왜 두고왔느냐?』

『왕께서는 선물로 보내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가져오라는 말씀은 안하셨습니다.』

『아이쿠.』

고구려를 병합하려던 부여왕 대소는 도리여 병합당할 걱정에 기가 꺾이우고 말았다.

* * *

야화

박연폭포 이야기

옛날 개성 천마산기슭에 박진사라는 가난한 선비가 살고있었다.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근근히 살아가는 그는 마음이 쓸쓸하거나 몸이 고달플 때면 통소를

불군하였다.
어느해 봄날
박진사는 가까운
벗 두어명과 함께 천마산폭포
구경을 갔다. 그
는 날이 저물었으나 폭포에 훌린
듯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갈 생각
을 잊고 통소만 불었다.

벗들은 그의 흥을 깨지 않으려고 돌아갔으나 박진사는 휘영

청 밝은 달이 솟아오를 때까지 나무에 기대여 하염없이 통소를 불었다.

이때였다. 깊은 웅덩이에서 물기둥이 솟아오르더니 아랫다운 녀인이 나타나 발걸음소리도 없이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박진사가 놀라 통소를 그치자 녀인은 『왜 그 좋은 노래를 그치셨나이까?』라며 말을 건너였다.

역사인물

강감찬(948년-1031년)은 경기도 시흥군에서 강궁진의 아들로 태여났으며 어릴 때 이름은 은천이었다. 강감찬은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지혜가 있었다고 한다.

983년에 파거에 장원급제하여 벼슬이 여러번 올라 레부사랑으로 되었다.

1010년 외적의 침입시 적들이 일시적 우세를 리용하여 개경부근까지 침입하게 되자 고려(918년-1392년)봉건통치총안의 일부 비겁한 량반관료들은 적들에게 투항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때 강감찬은 인민들의 적개심과 항전기세에 의거하여 일시 개경을 내여주는 한이 있더라도 항전을 계속할것을 완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봉건정부는 개경을 일시 내여주고 남쪽으로 피난하였으며 력량을 재정비한 고려군민은 강감찬이 세운 전략전술대로 개경주변을 비롯한 이르는 곳마다에서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적들의 침입을 물리친후 강감찬은 국자제주, 한림학사 등 여러 관직을 거쳐 중추사로 승진되였다가 리부상서로 전임되었다.

1018년 12월 10만의 외적이 또다시 침입하였을 때 상원수(군사총사령관)로 된 강감찬은 20만 8 300여명의 방어군을 지휘하였다.

그의 총지휘밑에 고려군은 긁은 바줄에 꿰맨 소가죽으로 큰 강물을 미리 막아놓았다가 적들이 홍화진(의주동남쪽 25리지점)에 기여들자 그것을 터뜨려 적의 전투서렬을 혼란시킨후 매복했던 기병 1만 2 000명으로 돌격하여 침략자들을 무리로 쓸어눕혔다. 침략군은 첫 전투에서부터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나 하루빨리 남하하여 개경을 점령하고 고려왕의 항복을 받아낼 기도밑에

『도련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토록 아름다운 가락으로 남의 마음을 휘젓나이까?』

『나는 저 아래동네에 사는 박진사라는 사람이요.』

『저는 일찌기 송도에서 살았는데 소란스러운 세상이 싫어 이 산속에 들어와 쓸쓸히 하루를 보내는 녀인이옵니다.』

그러며 그는 박진사를 자기 집으로 살뜰히 이끄는것이였다. 그

런데 녀인이 이끄는 집은 겨우 른 뜻이였다. 그러면서 어서 자기 집에 들어가 통소를 불라고, 그러면 자기는 춤을 추겠다고 하였다.

박진사는 녀인에게 이끌리여 뜻속에 들어가 영영 나오지 못하였다. 녀인은 바로 이 뜻속에 사는 통왕의 딸이였던것이다.

한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뜬눈으로 밤을 새운 박진사의

도중싸움을 피하면서 무모하게 계속 남쪽으로 기여들었다.

강감찬은 청야전술을 적용하여 개경주변 100리안팎의 인민들을 개경성안에 끌기게 하고 먹을것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게 하였다. 적들은 많은 손실을 무릅쓰고 개경으로 부터 100여리 떨어진 신은현(오늘의 신계)까지 기여들었으나 거듭되는 패전과 식량난으로 하여 도망치지 않을수 없었다.

강감찬의 지휘밑에 고려군은 총반격으로 넘어가 쫓겨가는 적들을 구주(오늘의 구성)부근에서 포위하여 전멸시키고 전쟁을 승리로 결속하였다.

당시 10만의 침략군중에 살아돌아간자는 불과 수천명밖에 안되었다고 한다.

강감찬이 개선하자 국왕은 영파역까지 나가 맞이하였으며 금으로 만든 8가지의 꽃을 머리에 끊어주고 축배를 들어 그의 공훈을 찬양하였다고 한다.

그는 1031년까지 최고벼슬인 문하시중으로 있었으며 83살을 일기로 사망하였다.

강감찬은 비록 량반출신이였으나 성품이 청백하고 생활에서 검소하였으며 재산이나 살림살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보통때에는 옷도 수수하게 입고 다녀 누구나 평범한 사람으로밖에 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일단 봉건정부안에서 국가의 대사를 룬할 때에는 엄숙한 태도로 당당하게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락도교거집』, 『구선집』이라는 책을 썼다.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조국강토를 보위하려는 애국정신을 가지고 옳은 전략전술과 능숙한 지휘로 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한것으로 하여 강감찬은 애국명장중의 한 사람으로 후세에까지 그 이름이 전해지고있다.

* * *

어머니는 폭포주변에 와서 아들을 찾다가 아들이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살아 무엇하겠는가 생각하고 뜻속에 몸을 던지고말았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통소를 잘 불던 박진사가 빠져죽은 못이라는 뜻에서 못의 이름을 『박연』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인 폭포를 『박연폭포』라고 하였다 한다.

* * *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가야금



부르고 춤도 잘 추었으며 술(고대진국의 진한사람들이 만든 악기-진한금)도 잘 다루어 왕궁의 전속음악가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진한금을 다루는 과정에 악기의 우결함을 깊이 파악

하고 그 부족점을 극복한 새 악기를 만들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의 고심어린 탐구속에서 마침내 진한금을 독특한 음색과 풍부한 형상력을 가진 악기로 개량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가야금입니다.

가야국의 현악기라는데서 그 이름도 가야금이라고 달았습니다.

초기 가야금은 여러개의 줄을 가진 뜯음줄악기였습니다.

그후 울림통, 줄, 이동패, 줄베개, 머리, 꼬리, 줄조임못, 다리, 울림구멍 등으로 된 구조를 갖추고 개량되었으며 줄수는 21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초기의 5음계체계로부터 7음계체계로 음을 맞추게 되었으며 음역이 훨씬 넓어져 그 연주법도 보충발전되었습니다.

구조가 간편하고 이동패로 음을 쉽게 맞출수 있는 가야금은 주법만 안다면 누구나 쉽게 배울수 있습니다.

가야금의 전통적인 오른손주법에는 뜨기, 횡기기, 집기, 미르기 등이 있습니다.

뜨기는 가야금연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주법의 하나로서 소리내는 방법이 간단하고 쉬워서 누구나 인차 터득할수 있습니다.

이 뜨기를 잘해야 우리 겨레가 좋아하는 민요풍의 노래, 현실주제의 다양한 음악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습니다.

횡기는 연주방법과 소리색 같이 독특할뿐아니라 탄력있고 약동적이며 속도감이 있게 음악



이번 민족의 향기란에서는 동포여러분도 알고있는 민족악기의 하나인 가야금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야금이라고 하면 마음앞서 벌써 많은 동포들이 《동기당》 소리를 내며 어깨를 들썩일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야금을 배운 저도 제가 치는 가야금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던 사람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든 분들 말입니다.

가야금은 전통적인 주법들을 우리 인민이 좋아하는 휘모리장단, 안령장단, 굿거리장단 등에 기초하여 약동적이고 구성진 선률로 펼쳐보이는 민족적정서와 향취를 더해주는 민족악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떼니 가야금이 언제 생겨났는지 동포들에게 알려주고싶은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물론 영화나 책을 통해 다 알고있겠지만...

가야금은 6세기 초엽에 가야국(금관가야)의 악사로 활동하던 재능있는 음악가 우륵에 의하여 창안제작되었습니다.

우륵은 오늘의 김해지방에 자리잡았던 가야국의 성열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노래를 잘

형상을 할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집기는 오른손가운데 손가락으로 아래소리를 뜨기로 내고 오른손 지시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웃소리를 훑고 떠서 내여 말그대로 《동기당》하는 소리가 나도록 연주하는것입니다.

미르기는 선률진행방향이 아래로 향하는 대목에서 쓰이는 주법으로서 독특한 소리색깔을 얻을수 있게 합니다.

가야금의 전통적인 왼손주법에는 통음, 끌소리, 미분음이 있습니다.

통음, 끌소리, 미분음을 통털어 통현이라고 합니다.

가야금연주법에서 가장 특색 있는것은 통현주법입니다. 통현주법은 오른손으로 줄을 뜯어 소리를 낼 때 소리나는 줄의 패아래부분을 왼손으로 누르거나 흔들어 울림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연주법입니다.

풍부한 민족적정서를 나타내는 이 기묘한 연주법에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종래에는 오른손으로만 소리를 내고 왼손으로는 통현만 하여 주로 단선률만 연주하던것이 오늘은 두손으로 소리를 내는 새로운 연주법이 도입되어 가야금에 대한 인기는 더 높아지고 있으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 가야금을 안고 오르는 동포 예술인들도 많아지고있습니다.

귀여운 손녀애들의 가야금소리에 어깨를 들썩이게 될 동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지금도 민족악기련습에 전심하고 있을 새세대 동포예술인들, 민족적정서와 향취, 랑만을 더해주는 가야금의 아름다운 울림을 가정과 일터에서 더 높이 울려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며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솔미

백두산누렁이

백두산누렁이는 우리 나라의 백두산일대, 남포태산, 북포태산, 백암 등지에 퍼져있다. 우리나라 사슴류가운데서 제일 큰 종으로서 크기, 털색, 뛰는 모습이 말과 비슷하므로 말사슴이라고도 한다. 몸길이 185~300cm, 어깨높이 130~160cm, 몸질량 250~300kg이고 앞다리와 뒷다리의 길이가 거의 같으므로 등은 수평으로 보인다. 여름털은 붉은 밤색 또는 밤색이고 겨울털은 재색이 도는 밤색이다. 이 마에서 시작하여 등마루를 따라 허리앞까지 검은 밤색의 줄이 뻗어있다. 몸옆은 연한 재밤색이며 배는 흰색이다. 엉덩이에는 누런기가 도는 흰색의 큰 무늬가 있다. 어린 새끼때에는 사슴처럼 잔등에 흰 점무늬가 있다. 목아래털은 갈기를 이룬다. 귀는 길고(21~23cm) 꼬리는 짧은데(12~15cm) 털이 나 있다.

수컷에게는 뿔이 있는데 매해 3~4월에 빠지고 5월초에 새뿔은 오른손으로만 소리를 내고 왼손으로는 통현만 하여 주로 단선률만 연주하던것이 오늘은 두손으로 소리를 내는 새로운 연주법이 도입되어 가야금에 대한 인기는 더 높아지고 있으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 가야금을 안고 오르는 동포 예술인들도 많아지고있습니다.

수컷에게는 뿔이 있는데 매해 3~4월에 빠지고 5월초에 새뿔

이 나온다. 첫해에는 뿔이 없고 이듬해에는 외뿔, 세번째 해부터는 가지를 치는데 흔히 5~7가지이며 9가지까지 뻗는것도 있다. 새로 돋아난 뿔은 털가죽을 쓰고 말랑말랑한데 이것을 록용이라고 하며 잘라서 말리웠다가 귀중한 보약재로 쓴다. 뿔은 8월 중순까지면 다 자라 털가죽이 벗어지면서 뿔질로 되어 굳어진다. 다 자란 뿔의 길이는 1~1.2m이고 질량은 10~15kg이다.

누렁이는 일반적으로 사슴보다 좀 더 높은 산지대에서 수십마리씩 무리지어 사는데 겨울에는 추위와 바람을 피하여 낮은 산지대의 산골짜기 나무가 무성한 숲속에서, 여름에는 더위와 등에를 피하여 산꼭대기나 산지의 북쪽 비탈면에서 산다. 해마다 9~10월에 쟁불고 5~6월에 1~2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고기, 털가죽 특히 뿔이 귀중하게 쓰이는 리로운 동물이다.



한해가 저물어 간다.

추억도 많은 이해에 잊을수 없는 또 하나의 모습은 조국의 통일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여온 해외동포들의 모습이다.

지금도 지난 8월 조국을 방문하였던 로씨야-조선반도종단자동차행진단 성원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재로동포들로 무어진 자동차행진단성원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백두-한나> 자동차행진》이라는 표대밑에 조종의 산백두산에서부터 행진을 시작하였다. 조국의 여러 도시를 경유하면서 그들은 나날이 발전하는 조국의 현실을 목격하였다. 민족의 자랑인 금강산의 황홀경 속에 민족의 궁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였고 조국통일3대현장기념탑과 판문점 등을 찾으면서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반드시 이루할 자기들의 의지를 퇴력하였다.

돌이켜보면 그들만이 아닌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온 한해 조국의 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올해초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인터네트홈페이지 《백두-한나》에 이런 글이 실리였다.

『지금 나라가 분렬된 탓에 조국에 얼마나 가슴아픈 현실이 존재하고 있는가. 반만년을 한파줄로 이어 슬기로운 역사와 문화를 창조해오던 단일민족이 둘로 갈라져 근 70년간 대립과 대결 속에 살고 있다. ...』

통일은 끊어진 혈맥을 이어 민족사의 흐름을 바로 세우고 민족이 하나가 되어 세계앞에 우뚝 서는 길이다. ...』

진정 민족의 분렬된 아픔을 더는 참을수 없기에, 통일은 겨레의 소원이기에 해외의 많은 동포조직들과 동포들은 올해 정초부터 목소리와 마음을 합쳐가며 통일애국의 자욱을 힘차게 내짚은것이었다. 재조선공민중앙협회에서는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루할데 대하여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통일애국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국통일 범민족련합 유럽지역본부와 재도이월란드동포협력회도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거족적투쟁에 힘차

게 멀쳐나설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렇게 이해의 날파 달이 훌렸다.

해외동포들은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 15일과 10월 4일, 조국해방의 날(8월 15일)을 비롯한 여러 계기를 맞을 때마다 다양한 행사를 성대히 진행하며 통일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6. 15공동선언발표 14돐에 즈음한 동포들의 활동만 놓고보아도 재일동포들은 통일토론회와 함께 《그려보자! 우리가 안아올 통일조국을!》이라는 주제의 6. 15문화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재중동포들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시 및 노래경연회를 통하여 합창 《통일 6. 15》, 시랑송 《우리의 6. 15 지키자》 등으로 조국통일운동을 드세게 벌려나갈 의지를 보여주었다. 재미동포들은 로스안젤레스와 뉴욕에서 기념행사들을 가지고 14년전 6월 통일에 대한 희망에 넘쳐 환호를 터치던 겨레의 모습을 추억하였으며 6. 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 위원회 유럽지역위원회의 일군들과 동포들은 도이췰란드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온 한해 해외동포들은 민족이 바라는것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6. 15공동선언, 10. 4선언을貫통하고있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조국을 통일하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뿐만아니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미동포전국련합회를 비롯한 많은 동포조직들과 동포들은 미국과 남조선이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각종 반공화국핵전쟁연습을 련이어 광란적으로 벌릴 때마다 그를 규탄하는 성명과 담화 등을 발표하면서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각종 시위를 드세차게 벌리였다.

이러한 모습을 동포조직들의 여러 출판보도물이 광범히 전하였다.

재미동포인터넷신문 《민족통신》 대표는 올해 해외동포들속에서 통일열망이 강렬하다고 하면서 해내외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치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수 있다고 확인하였다.

참으로 해가 바뀔수록 더욱 절절해지는것이 통일에 대한 겨레의 소원이다.

본사기자 조선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새 국면을



이해가 저물면 민족이 분별된지 어언 70년이 된다.

70년, 그 기나긴 세월 분별은 겨레의 마음속에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기였고 이루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북파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 리념의 차이가 존재하고 군사적긴장과 대결의 팽팽한 분위기가 떠도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민족끼리 뭉친 힘으로 하루빨리 조국통일의 새

유모아

눈 보고 병 진단

의사 : 당신의 병이 매우 중한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의 한쪽 눈만 보고도 알수 있습니다. 당신은 현재 폐염에 걸려 열이 나고 항상 판절염이 심해 무릎판절이 부어있을것입니다.

환자 : 이쪽 눈을 다시한번 보아주십시오. 방금 당신이 본 눈은 가짜눈입니다.

로운 국면을 열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하기에 공화국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해에도 할수 있는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 지난 1월부터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한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남측에 제기하였고 모처럼 대화가 마련되면 어떻게 하나 그것을 성공에

로 이끌어가기 위해 양보도 하고 인내력도 발휘하였다.

지어 미국과 남조선이 벌려놓은 북침핵전쟁연습으로 하여 북남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정세속에서도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가 진행되는 남조선 인천에 큰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였다.

그것은 평화와 친선을 지향하는 올림픽리념에 맞게 대회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불신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실지로 보면 조선반도정세가 완화되고 북남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면 악을 쓰며 훼방을 놓는것이 바로 미국이다.

북파 남은 그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분별을 통해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외세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조선반도를 장악하여 그것을 거점으로 세계제패 야망을 실현하려는것은 미국의 속심이다.

외세에 의하여 북파 남으로 갈라져 수십년세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은 하루빨리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

을 열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온 겨레가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파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설 때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북파 남은 민족우선, 민족증시, 민족단합의 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가야 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6. 15 공동선언의 발표후 펼쳐진 6. 15통일시대는 북남공동선언들이 사상과 리념이 서로 다른 북파 남의 우리 민족에게 공감될 수 있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지금 세계는 자주통일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공화국정부의 원칙적립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되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기를 바라고있다.

민족분별의 비극사는 더이상 지속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2015년의 대문을 마주한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새겨진 갈망이다.

6. 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성분과위원회 위원 박영희

죄악의 력사는 지워버릴수 없다

미국은 뉴욕 헤드손강반에 서있는 《자유의 녀신상》을 자국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도》처럼 행사하고 있다.

그 《평화의 사도》의 진면모를 남조선에 기여든 미군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최근년간만 놓고보더라도 남조선강점 미군은 무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폭행, 살인을 비롯한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것을 폐상사로 여기고있다. 경기도 동두천에서 술에 만취된 미군병사들이 영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식당주인에게 다짜고짜로 왜 성매매를 하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며 폭행을 가한것이라든가 미군병사들이 경기도 평택에서 20대의 녀성을 성희롱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무고한 주민과 경찰을 향해 총을 쏘아대며 란동을 부린것이 그 단적인 실례로 된다.

돌이켜보면 8. 15해방후 남조선에 기여든 미군은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짐승도 낮을 밝힐 야수적 학살만행과 범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미제의 군화발에 짓밟힌 남조선은 거대한 인간도살장이였다.

주체34(1945)년 9월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기여든 이후 주체38(1949)년 7월까지 기간에 애국적인민들이 근 10만명이나 학살되었다. 북침전쟁을 준비하던 주체38(1949)년 7월

부터 주체39(1950)년 봄까지 몇개월기간에 미군은 그 이전보다 더 많은 10만 9 00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미제침략군은 조선전쟁시기에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방법으로 조선인민을 무참히 살륙하였다. 《북조선의 78개 도시를 지도우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떠벌이면서 미제침략군이 들어댄 무차별적인 폭격과 살륙만행들은 동서고금의 혁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것이였다.

무고한 인민들을 귀를 끊어끌고다니다가 죽였고 눈알을 뽑고 가죽을 벗겨서 죽였으며 입술을 도려내고 혀를 잘라 죽였으며 팔다리를 찢고 각을 떠서 죽였는가 하면 머리에 대못을 박거나 톱으로 토막을 내여 죽였으며 불태워죽이고 땅크로 깔아뭉개여 죽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신천대 학살만행, 로근리민간인대 학살만행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공식통계에 의하더라도 미제는 조선전쟁시기 공화국북반부에서 123만여명, 공화국남반부에서 124만여명을 학살하였다.

썩어빠진 인종주의사상과 패륜폐덕에 물젖을대로 젖은 남조선강점 미군은 살인과 강간 등을 패락으로 삼았다.

주체36(1947)년 호남선렬차안에서 24명의 미제침략군이

어린아이까지 업은 3명의 조선녀성들을 불들어 집단적으로 뿐만 아니라 다음 마구 때려 질식시킨 조선부녀릉욕사건, 주체37(1948)년 1월 22일 밤중에 무리를 지어 달려들어 부산부암리에 살고있는 현지주민들의 집문을 까부시고 쳐들어가 수육을 채우려고 칼로 녀성들에게 폭행을 가한 범죄, 주체37(1948)년 2월 11일에는 나어린 소녀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변태적인 성폭행을 감행한 사건…

주체46(1957)년의 군산소녀총격사건과 인천송유관어린이사살사건, 주체47(1958)년의 부평소년직승기궤짝사건, 주체48(1959)년의 의정부녀인뺑끼칠사건, 주체81(1992)년 윤금이살해사건, 주체91(2002)년 신효순, 심미선 학살사건…

괴뢰당국의 공식통계에 의하더라도 1945년 남조선을 강점한 이후 미군이 지금까지 저지른 살인, 강도, 강간을 비롯한 각종 범죄는 무려 23만건 이상에 달하고있다.

얼마전에는 미제가 흑막속에 묻어두었던 1950년대 조선전쟁 이후 남조선녀성들을 상대로 감행된 미군의 위안부범죄사건도 드러났다.

세월은 모든것에 망각을 가져온다고 한다. 하지만 미제가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죄악의 혁사는 절대로 지워버릴수도, 감출수도 없다.

본사기자 엄향심

고화

《달 밤》

『달밤』은 김홍도(1745년-?)의 그림이다.

몇 그루 관목들 사이에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비껴있는 숲속의 밤풍경이다. 교교한 달빛이 비치고 바람도 없어 사위는 무한히 조용하며 달밤의 고유한 정서만이 흐르고 있다.

화면에는 비록 하늘에 떠오른 달과 나무밖

에 없지만 긴 여운을 가지고 있어 화면밖의 보다 넓은 아름다운 산천을 보는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조국의 아름다움을 작은 화폭에 재치있게 잘 담았으며 풍만한 시정과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다.

* * *





을밀대의 겨울

본사기자 최원철

평양8경의 하나로 손꼽히는 을밀대의 봄풍경도 절경이지만 흰눈덮인
겨울풍경 또한 아름답기 그지없다. 하얀 눈을 소복이 얹은 다박솔 등
눈꽃을 피운 나무들과 옛 건물이 한데 어울린 정서에 끌려 처녀총각들
발걸음 선뜻 떼지 못한다.

ISSN 1727-90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7-482146
<http://www.naenara.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